

청소년 세계관 형성과 통성경  
: 합성교회 청소년부 사례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이정욱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0년 5월

Copyright © 2020 Jeongwook Lee

All rights reserved.

## **ABSTRACT**

### **Forming of the World View of the Youth and Tong Bible : A Case Study of Youth Group at Habseong Church, Masan, Korea**

Jeongwook Lee

Habseong Church, Masan, Korea

Teenagers living in this generation are forced to unilateral choices in various worldviews created by the world. They are confused whether what to choose among the worldview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worldview through Tong Bible to teenagers who find it hard to form their own worldview in the midst of various worldviews and to those who accept the wrong values given by the world. Therefore, this research intends to study and present the effect of Tong Bible on effectively forming a worldview by considering various characteristics of teenagers.

For the research, I used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 that refers to, synthesizes, analyzes and organizes the literatures related to the worldview and Tong Bible. Through this, I presented the theoretical and theological grounds of Tong Bible worldview and examined the worldviews of the kingdom of priests and the kingdom of God, which are the core values of the Tong Bible worldview. The core value is redefined with four worldviews designed by researchers according to the situation and environment of the teenagers living in this generation. In order to form the worldview of teenagers, I examined the process of change through preaching Tong Bible world view, study group, and four weeks of world view formation project.

The teenagers who participated in the project were able to speak Tong Bible

naturally and fluently in the field of life, and to the extent that they could recommend the advantages of Tong Bible world view to others. At every moment of choice, I could assure that these teenagers choose and decide with Tong Bible world view. It was found through research to see that the results of behavior change and change as Tong Bible world view is firmly established within the teenagers.

Through this research, I realize that the ultimate change of teenagers begins with a change in the innermost world view. I look forward to this study through Tong Bible world view and to stand firmly in the flood of the world views.

## 국문초록

### 청소년 세계관 형성과 통성경

: 합성교회 청소년부 사례연구

이정옥

합성교회, 마산, 한국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세계관 속에서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스스로 어떠한 세계관을 선택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관의 홍수 속에 자신만의 세계관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또한 세상이 주는 잘못된 가치관을 마치 전부인양 받아들이는 청소년들에게 통성경을 통하여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다양한 특징들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통성경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세계관과 통성경에 관련된 문헌들을 참고하고 종합하여 분석, 정리하는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서 통성경적 세계관의 이론적,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통성경적 세계관의 핵심가치인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핵심가치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에 상황과 환경에 맞게 연구자가 고안한 4가지 세계관으로 재정립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세계관 형성을 위해서 통성경적 세계관 설교와 분반공부, 그리고 4주간의 세계관 형성 프로젝트 진행하며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통성경적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통성경적 세계관의 장점을 권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 또한 선택의 순간마다 통성경적 세계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의 내면 속에 통성경적 세계관이 굳건히 형성되니 행동의 결과가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는 것을 연구를 통해 발견하게 되었다.

청소년들의 궁극적인 변화는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세계관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연구를 통해 깨달으며, 많은 청소년들이 통성경적 세계관으로 자신의 내면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세계관의 홍수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나가길 이 연구를 통해 기대해 본다.

## 목 차

감사의 글 .....	xi
표 목차 .....	ix
그림 목차 .....	x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	1
연구 방법 .....	4
연구 범위와 제한성 .....	5
II. 청소년 세계관의 대한 이해 .....	6
세계관(world-view)이란? .....	6
청소년의 이해 .....	12
청소년들의 세계관 .....	16
III. 통성경적 세계관의 대한 이해 .....	26
통성경이란 .....	26
통성경의 세계관 .....	31
제사장 나라의 세계관 .....	32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	38
청소년을 위한 통성경적 세계관 .....	44
세계관 형성과 통성경 .....	51
IV. 통성경을 통한 청소년 세계관 교육 프로그램 .....	55
통설교와 분반공부를 통한 교육 .....	56
세계관 형성 프로젝트 .....	62

V. 청소년 세계관 형성을 위한 통성경 교육실행: 합성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	70
세계관 형성 교육실행의 배경 .....	70
세계관 형성 교육을 위한 사전 작업 .....	72
통설교와 분반공부를 통한 교육 실행 .....	78
통설교와 분반공부를 통한 교육 평가 .....	83
세계관 교육 프로젝트 실행 .....	87
세계관 교육 프로젝트 설문 및 인터뷰 .....	90
VI. 결론 .....	94
연구 요약 .....	94
결론과 평가 .....	96
참고문헌 .....	99



## 표 목차

<표1> 세계관의 문화 .....	9
<표2> 세계관의 형성과정 .....	10
<표3> 세계관 교육 프로그램 .....	55
<표4> 8주간 설교 제목과 핵심내용 .....	58
<표5> 세계관 형성 통설교 1년 계획 .....	59
<표6> 4회차 설교 제목과 핵심내용 .....	60
<표7> 분반공부 매뉴얼 .....	62
<표8> 프로젝트 커리큘럼 .....	64
<표9>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프로젝트의 실제 .....	66
<표10> 세계관에 대한 기본조사 .....	71
<표11> 세계관에 대한 인식변화 .....	84
<표12> 세계관 형성과 통성경 교육의 유익 .....	85
<표13> 세계관과 통성경의 영향 .....	86

## 그림 목차

<그림1> 수련회를 통한 사전작업1 .....	74
<그림2> 수련회를 통한 사전작업2 .....	74
<그림3> 수련회를 통한 사전작업 수련회 포스터 .....	75
<그림4> 세계관 형성 교사 교육1 .....	77
<그림5> 세계관 형성 교사 교육2 .....	77
<그림6> 통설교를 통한 교육실행 .....	81
<그림7> 세계관 형성 분반교육 .....	83
<그림8> 세계관 교육 프로젝트 수료식 .....	88
<그림9> 세계관 형성 프로젝트 포스터 .....	89

## 감사의 글

먼저 부족한 사람을 아낌없는 지도와 가르침으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가져다주신 통(通)박사 조병호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한권이면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제 심장을 뛰게 합니다. 부족한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어머니의 마음처럼 세심하게 관심 가져 주시고, 부끄럽지 않은 논문이 되도록 지도해주신 김영래 교수님께 진심을 담아 감사를 전합니다. 신학교 입학할 때부터 책을 통해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신 레너드 스윗 교수님, 교수님의 강의를 직접 듣고 사과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세 분 교수님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가르침은 앞으로 목회 가운데 큰 자양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이자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성교회 구동태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부족한 저를 항상 격려와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합성교회 최정규 담임목사님과, 구효정 사모님께 감사를 드리며, 함께 사역함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이성운 목사님, 박준 목사님, 그리고 허찬 목사님, 합성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합성교회 중등학교 H.M.C. 모두에게 감사하며 순종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김태우 장로님과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 아들 때문에 잠 한번 편히 못 주무시고 늘 새벽마다 기도해주시고, 목회학 박사과정을 잘 마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사랑하는 부모님 이용식, 이운정 집사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사위를 항상 최고의 목사라고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신 사랑하는 부모님 이재현, 정영애 권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나이지만 아빠가 논문 쓰고 공부 하는걸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고 묵묵하게 기다려준 사랑하는 두 아들 진언, 주언이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나 하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나의 돕는 베필이자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아무 걱정 없도록 배려해 준, 생각만 해도 말할 수 없는 고마움에 눈물이 날 것만 같은 사랑하는 아내 이지민에게 이 논문의 모든 공을 돌립니다.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처음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던 그 때를 기억하며 남은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0년 3월

늦은 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자리에서

이정욱

## 제 I 장

### 서 론

#### 연구의 목적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흥행을 불러일으킨 영화들이 있다. 화려한 액션과 흥미로운 이야기로 전 세계 마니아층을 두텁게 형성한 <어벤져스>, 오래전에 개봉했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 사이에 널리 회자되는 <반지의 제왕>, 소설은 물론 영화로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해리포터> 그리고 세계적으로 많은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이다. 이들 작품은 저마다 독특한 세계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어벤져스>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arvel Cinematic Universe)라는 세계관을 기초로 다양한 히어로가 지구 내부의 적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우주적 존재와 전투를 벌이며 지구를 지켜 나가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다. 판타지적 요소와 마법사의 세계관이 어우러진 <해리포터>는 인간 세상에 사는 마법사들이 그들만의 세계로 돌아가 펼치는 모험적인 이야기를 다룬다. <왕좌의 게임>은 웨스테로스라는 가상의 대륙에서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펼치는 대가문들의 치열한 정치적인 수 싸움과 전쟁 이야기를 판타지 요소를 더해 풀어낸 드라마이다.

이렇듯 지금 시대는 세계관의 시대라고 할 만큼 문화와 예술뿐만 아니라 게임 속에까지 다양한 세계관이 존재한다. 그러나 세계관이 다양해질수록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개개인이 어떤 세계관을 가졌느냐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과 가치가 달라진다. 즉, 어떠한 세계관을 구축했느냐가 개인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세계관에 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매체를 통해 보여지는 세계관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의는 더욱더 필요하다. 한때 악인을 마치 의리의 대명사 혹은 불합리한 제도권에 저항하는 피해자 등으로 묘사했던 영화가 많이 등장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 당시 청소년들은 영화 속의 선한 인물보다 악당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에 더 큰 모방 욕구를 느끼며 실제로 따라 하기도 했다.

미국 다트머스대학 의과대학 소아과 수잔 탄스키 교수 팀이 ‘영화 속 인물의 흡연이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캐릭터의 성격과 개인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편적으로 모방하고자 하는 욕구를 악인이 더 많이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이는 청소년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잘못된 세계관에 자주 노출되면 그것을 올바른 세계관으로 인식해 잘못된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자신의 세계관을 형성해 나가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잘못된 세계관을 아무런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세계관을 마치 올바른 세계관으로 인식함으로써 잘못된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

잘못 형성된 세계관은 결국 잘못된 행위의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

<sup>1</sup> <http://kormedi.com/1189961/> (2019년 12월 8일 접속).

종교학자 니니안 스마트는 세계관에 관해 “사람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믿고 있다면, 그것은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 무언가는 바로 실재의 중요한 측면을 담고 있다.”<sup>2</sup>라고 말하며 세계관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필자는 몇 년 전 한 청소년 학생과 소년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간 적이 있다. 재판이 끝나고 퇴장하려는 순간 담당 판사가 학생에게 “앞으로는 잘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 후 필자의 머릿속에 ‘잘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말이 맴돌았다.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잘 생각하는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했지만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청소년들이 잘 생각할 수만 있다면, 세상이 심어 주는 다양한 생각 중에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신념을 지켜 나갈 수 있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청소년들이 그 시기에 올바른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상이 던지는 다양한 세계관 속에서 가장 최고의 세계관은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생각했다. “기독교적 세계관의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타락,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 등 4가지 명제로 되어 있다.”<sup>3</sup>

창조는 과학적 자연주의, 물질주의, 진화론과 대립하고 타락은 죄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와 대립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경제적 번영과 만족 그리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세속주의와 대립한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

<sup>2</sup> Ninian Smart, *종교와 세계관*, 김윤성 역 (서울: 이학사, 2000), 16-17.

<sup>3</sup> 나용화,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8), 14.

대척점을 이루지만 결국 기독교적 세계관은 세상의 세계관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이자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이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런 내용을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 올바른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지 고민하던 중에 통성경을 접하게 되었다.

성경을 파편화하지 않고 전체로 바라보며 읽는 통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하나로 연결해 보는 눈이 생겼다. 또한 성경 속에 등장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다. 청소년 시기에 다양한 세계관의 홍수 속에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핵심가치를 기초로 삼는 청소년들에게 통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세계관 형성에 통성경이 미치는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세계관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동시에 청소년만의 고유한 특징과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과 세계관의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과 세계관에 관한 책과 학위논문들을 중심으로 개념을 정리했다. 궁극적으로 통성경으로 청소년의 세계관을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나가기 위해 조병호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진행했다.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는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세계관이 나타난다. 그 세계관을 중심으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에게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립하였다.

재정립한 통성경적 세계관을 합성교회 청소년부에 직접 적용해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적용 결과와 사례들을 본 논문에서 소개하고 확보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청소년 세계관 형성과 통성경의 상관관계를 연동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심층 인터뷰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수행한 설문조사를 보충해 논문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의 세계관 형성에 통성경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연구 범위와 제한성

세계관은 정량적 분석을 통해 정리할 수 없다. 이는 개인이 선택해 결정하는 삶의 영역이므로 기독교적 세계관의 확립 여부를 객관적인 잣대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합성교회 청소년부로 한정하고 그들의 삶에서 유의미하게 변화된 삶의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은 필자가 사역하고 있는 합성교회 청소년부를 대상으로 한 만큼 환경적 특수성과 다양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모든 교회와 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연구 결과도 일반화할 수 없다. 하지만 다양한 세계관의 홍수 속에 사는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나은 선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제 II 장

### 청소년 세계관의 이해

#### 세계관이란

일반적으로 세계관(world-view)은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 즉 세상을 보는 관점(perspective)을 의미한다.<sup>4</sup> 사람들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모두 자신만의 특별하고 정형화된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계관을 바탕으로 선택과 결정을 한다. 이러한 세계관을 동서양의 학자들은 자신의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한다. 최재호는 저서 『믿음은 세계관의 전쟁이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계관은 사물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틀이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이나 일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보고,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집한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생각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생각의 과정은 나름대로 일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틀이 있다. 틀이라는 말속에는 그 사람의 특징적인 행동이나 유형이나 경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체계가 있다. 동일한 사물을 보아도 생각하는 틀이 다르면, 나타나는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다. 똑같은 재료를 넣어도 틀이 다르면 나오는 결과물이 다르다.<sup>5</sup>

신국원은 세계관을 창문에 비유해 설명한다.

우리는 여러 가지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본다. 이 세계는 물론 하나다. 모든 인류가 다 함께 그것을 보고 듣고 만지며 경험한다. 세상은 우리 모두가 그

---

<sup>4</sup> 이승구,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SFC출판부, 2003), 15.

<sup>5</sup> 최재호, *믿음은 세계관의 전쟁이다* (서울: 주식회사 힐링, 2016), 35-38.

속에서 다같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의 세계를 각기 독특하게 인식한다. 세상을 보는 창문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세계관은 세상과 인생을 내다보는 창이다.<sup>6</sup>

앨버트 월터스는 세계관을 나침반이라고 설명한다.

그것을 완전히 의식하지 못하고 분명히 설명할 수 없을 때라도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우리가 접하는 사건과 현상들의 혼란 속에서 어디가 위이고 어디가 아래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감지하게 해 주는 나침반이나 약도의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세계관은 사건과 쟁점들, 우리 문명의 구조와 우리 시대를 평가하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다양한 현상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정하도록’ 해 준다.<sup>7</sup>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좋은 땅에 관한 비유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잘 들어라. 한 농부가 들에 나가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왔으나 해가 돋자 뿌리를 박지 못한 그 싹은 타서 말라 버렸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가 자라 그 기운을 막았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sup>8</sup>

나무와 식물 그리고 꽃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씨앗과 종자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좋은 날씨와 수고하는 농부가 있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씨앗과 날씨와 농부가 있다 한들 그 땅이 썩은 땅이거나 죽은 땅이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똑같은 씨가 어떤 땅에 떨어졌느냐에 따라

<sup>6</sup> 신국원, *니고데모의 안경*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5), 19.

<sup>7</sup> Albert M. Woltere, *창조·타락·구속*, 양성만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2), 29.

<sup>8</sup> 마가복음 4장 2-8절(현대인의성경).

맺히는 열매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처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좋게 보이기도 하고 나쁘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외부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 심어진 씨앗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는 바로 내면에 형성된 세계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세계관은 인간의 삶과 내면의 토양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비유한 것과 같이 세계관을 토양에 비유하고자 한다.

로버트 A. 해리스는 세계관을 개인의 이론이라고 정의한다.

세계관은 세상의 모든 면을 보다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방식으로 한 개인의 경험과 생각과 감정 등에 일관성 있는 의미를 도출해 내는 수단이다. 세계관은 개인에 의해 선정되며 발전되어야 하고 우리가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때마다 성장하고 발전한다.<sup>9</sup>

세계관은 개인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양한 경험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 준다. 그리고 개인적인 영역에서 출발한 세계관은 문화의 영역으로 확장된다. 따라서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도 세계관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화인류학자들은 세계관을 통한 행동의 발현을 문화라고 한다. 그래서 문화를 설명할 때 세계관(world view), 가치체계(value system), 행동양식(behavior pattern)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 중에서 가장 심층부에 있는 것이 ‘세계관’이다. “세계관으로부터 ‘가치체계’ 들이 나오고 이 가치체계들을 따라서 ‘행동양식’ 들이 나타난다.”<sup>10</sup> 다시 말하면 개인이 선택하고 결정한 모든 행동의 결과는 그의 가치체계에서 발생하고, 그 가치체계는 결국 내면의 가장 깊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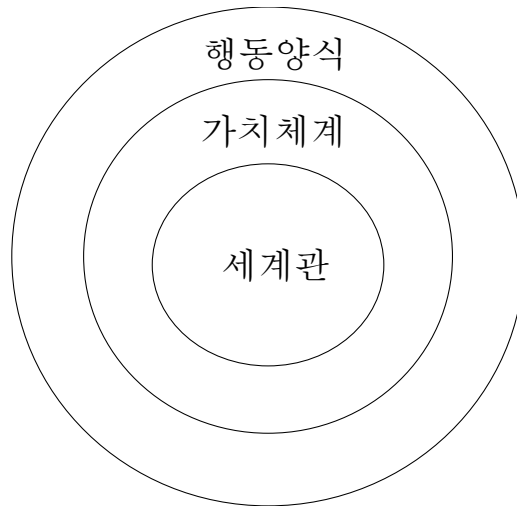
<sup>9</sup> Robert A. Harris, *신앙과 학문의 통합*, 최용준 역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3), 113-14.

<sup>10</sup> 안점식, *세계관을 분별하라* (서울: 조이선교회, 2019), 28.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세계관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무심코 하는 모든 행동은 내면의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고, 행동하는 양식들은 결단코 세계관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세계관의 문화를 도식화하면 <표1>과 같다.

<표1> 세계관의 문화<sup>11</sup>



#### 세계관의 형성

송인규는 그의 저서 『새로 쓴 기독교, 세계, 관』에서 세계관의 형성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세계관이 형성되려면 ‘눈으로 보는 것’과 ‘생각해 보는 것’이 함께 있어야 한다.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한 1단계는 세계관의 내용을 배우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배우는

<sup>11</sup> 안점식, *세계관을 분별하라* (서울: 조이선교회, 2019), 28.

작업이 1단계이다. 2단계는 배운 내용을 되새기고 깊이 생각하여 기억의 창고에 저장해 두는 작업이다. 이때 숙고나 반추의 활동이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배운 내용을 많이 간직할 수 있고, 반대로 이런 작용을 소홀히 하면 조금밖에 간직할 수 없으므로 배운 것이 거의 기억나지 않게 된다. 3단계는 연관 짓기인데, 우리는 세상의 삶과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피조세계(자연, 인간, 문화, 사회)를 눈으로 보고,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의 세계관의 내용을 적용해 보고 연결시켜 보는 것이다.<sup>12</sup>

4단계는 확립하기 단계이다. 이 단계는 앞의 세 과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앞의 세 단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세계관은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된다. 반대로 앞의 과정 가운데 어느 하나가 빠지면, 세계관이 확립되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서 ‘확립’은 정도(degree)를 염두에 둔 말로서, 각 그리스도인의 성숙 정도에 따라 세계관이 크게 확립된 경우도 있고, 조금 덜 확립된 경우도 있다.<sup>13</sup>

세계관은 한 번의 과정, 즉 단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선명하고 확고하게 형성된다. 즉, 세계관의 형성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그 세계관에 노출되었는지에 따라 확립 정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제대로 된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1단계 이해하기 → 2단계 간직하기 → 3단계 연관 짓기 → 4단계 확립하기’<sup>14</sup>를 한 번의 과정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할 때 비로소 선명하고 확고한 세계관이 형성된다.

세계관의 형성 과정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

<sup>12</sup> 송인규, *새로 쓴 기독교, 세계, 관* (서울: ivp, 2014), 109.

<sup>13</sup> Ibid., 113.

<sup>14</sup> Ibid.

<표2> 세계관의 형성 과정<sup>15</sup>

1단계	이해하기(comprehension)	가르침을 통해 세계관의 내용을 배움
2단계	간직하기(retainment)	배운 바를 숙고·반추·기억
3단계	연관 짓기(correlation)	만물(자연, 인간, 문화, 사회)과 접촉하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연관시킴
4단계	확립하기(establishment)	세계관이 마음에 자리잡게 됨

## 세계관의 중요성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세계관은 이 선택의 순간에 한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결정해 주는 매우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며, 그의 삶의 태도와 행동을 지도하는 원리가 된다.”<sup>16</sup> 그래서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모든 결정의 순간에 세계관이 작용한다. 즉, 세계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선택하게 되므로 세계관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선택도 달라진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Birth)와 D(Death) 사이의 C(Choice)” 라며 선택(choice)의 중요성을 말했다. 또한 로널드 내시(Ronald Nash)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신념”<sup>17</sup>이라고 세계관의 중요성에 관해 말했으며, 안점식은 “우리는 특정한 세계관을 ‘통해서(though)’ 혹은 ‘가지고(with)’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게 된다.”<sup>18</sup>라고 했다. 결국 인생에서

---

<sup>15</sup> Ibid., 108.

<sup>16</sup> 정소영,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세계관 특강* (서울: 미래사CROSS, 2019), 28.

<sup>17</sup> 이태희, *동성애가 바뀌버릴 세상 세계관 전쟁* (서울: 두란노서원, 2016), 53.

<sup>18</sup> 안점식, *세계관과 종교문화*, 22.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신념이자 세계관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세계관은 우리 삶에 주어진 문제와 가치를 판단하는 데 기준을 제시해 준다. 예컨대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못할 때 이혼해도 되는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고용인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가?”<sup>19</sup>와 같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답을 내릴 때 보이지 않는 세계관의 인도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의사 결정을 하거나 혹은 동일한 현상을 바라볼 때 내재된 세계관에 따라 다양한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가치체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사상과 행동이 나올 수 있으며, 행동은 세계관의 진공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틀에서 나온다.”<sup>20</sup>

## 청소년의 이해

### 청소년이란

청소년 세계관의 이해에 앞서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청소년(adolescence)이라는 용어는 라틴어 Adol과 Scent에서 유래된 말로 ‘성장’ 또는 ‘성숙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생애주기에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전환기”를 말한다.<sup>21</sup>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학

<sup>19</sup> Woltere, *창조·타락·구속*, 29.

<sup>20</sup> 최재호, *믿음은 세계관의 전쟁이다*, 40.

<sup>21</sup> 김정겸,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교육대학원, 1997), 12.



개론』에서는 청소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청소년의 범주를 연령에 따라 법으로 규정하지만,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청소년을 연령으로 정의하지 않으려고 한다. 청소년이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연령 범주라기보다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은 자의식을 형성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부모나 여타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이나 물질적 지원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sup>22</sup>

보편적으로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로 일컫는다. 견잡을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바람과 무엇이든 삼켜 버릴 듯한 파도와 같은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 단계로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다양하고 급속한 변화 속에서 자신만의 생각과 가치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은 인생의 다른 시기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다.

#### 청소년기의 특징

청소년기는 인생의 발달과정<sup>23</sup>에서 “신체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일 뿐 아니라, 심리적 변화로 인해 정신적 혼란을 겪으며 자아를 형성하는 시기이다. 또한 급격한 지적(知的) 발달과 부모님과 또래 친구와의 관계에서 사회성이 형성되고 이성에도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sup>24</sup>이다. 다른 시기와는 다르게 청소년기만의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김서택은

<sup>22</sup>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학 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7), 18.

<sup>23</sup> 인생의 발달과정은 태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구분한다.

<sup>24</sup>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학 개론*, 19.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에 관해 “사춘기는 탄생 그다음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직한 변화”<sup>25</sup>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여자 청소년의 경우 가슴이 발달하고 남자 청소년은 수염이 나기 시작하며 남녀 청소년 모두 급속도로 신장이 커지며 생식 기관의 발달로 인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sup>26</sup> 이렇듯 갑작스럽게 겪게 되는 신체적 변화는 청소년들에게 두려움과 혼란을 가져다준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겪는 정서적 혼란과 불안감은 급격하게 발달하는 신체적 변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기에는 정서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난다. “정서란 일반적으로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내면에 일어나는 감정 혹은 정신적 상태”<sup>27</sup>이다. 그렇기에 조그마한 자극에도 크게 동요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나타내기도 하며 내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흥분과 즐거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감정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 이처럼 “청소년기에는 감정 기복이 격렬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감성세대라고 부른다.”<sup>28</sup> 즉, 청소년기에는 “자아의식과 현실과의 갈등으로 인해 정서적인 변화를 경험”<sup>29</sup>하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기에는 관계적 특징이 있다. 부모와의 관계, 이성과의 관계 그리고 또래 친구와의 관계에서 자아의식과 사회성, 동료의식을 형성하는 등의 관계적 특징이 나타난다. 동시에 이러한 관계를 통해 성숙해지면서 세계를 바라보는

<sup>25</sup> 김서택, *청소년교육*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2005), 16.

<sup>26</sup> 한상철 외 4인, *청소년 문제행동 - 심리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2003), 18.

<sup>27</sup> 한상철, *청소년학: 청소년 이해와 지도* (서울: 학지사, 2004), 120.

<sup>28</sup> 한승돈, *크리스천 세계관: 청소년 교육을 위하여*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8), 165.

<sup>29</sup> 김희자, *정보화 시대의 기독교 청소년 교육*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5), 104.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자아의식의 발달로 점차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 자기 자신과 친구에게 의존하게 된다.<sup>30</sup> 다시 말해, 청소년기에는 부모에게서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같은 가치와 생각을 공유하는 또래 집단을 자신의 가치체계로 수용하면서 그 집단 속에서 행해지는 것으로부터 만족과 안정감을 찾는다. 이렇듯 청소년들은 관계를 중요시하는 관계 중심적인 특징을 가진다.

넷째, 종교적인 특징이 있다. 피아제(Piaget)는 청소년기를 형식적 조작기 단계로 보았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믿음, 즉 종교, 정치, 도덕, 교육 등의 논리에 일관성을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으면 더는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하며, 자신의 판단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부모의 종교를 떠나 스스로 종교를 선택한다.<sup>31</sup>

다시 말해 유아기와 아동기에는 자신이 아닌 외부 사람 혹은 환경적 요인이 종교적 행위의 주체였다면, 이 시기에는 청소년 스스로가 종교를 선택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다고 청소년들이 맹목적으로 종교에 심취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종교에 무관심하거나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다. 즉, 청소년기에는 스스로 독립적인 가치체계를 형성해 자신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다. “청소년기의 종교적 관심은 형식적이고 제도적, 교리적 종교에 대해서는 극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다. 그러나 종교적 진리 추구와 신앙의 순수한 내용의 모색에는 진지한 태도로 관심을 쏟는다.”<sup>32</sup>

<sup>30</sup> 장휘숙, *전 생애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2000), 237.

<sup>31</sup> 한국 청소년 학회, *청소년학 총론* (서울: 양서원, 2003), 120-21.

<sup>32</sup> 박진석, “기독교 세계관이 청소년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선교대학원, 2011), 24.

## 청소년들의 세계관

지금 우리 사회는 포스트모더니즘, 뉴에이지, 초자연적 세계관, 유교적 세계관' 등 다양한 세계관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듯이 혼재되어 있다. 마치 절대적인 세계관이 존재하는 것처럼 자신의 세계관이 최고인 듯 경쟁한다. 이러한 세계관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사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세계관 중에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세계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개인주의적 세계관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와 문화가 변화하면서 가족의 유형도 달라졌다. 몇 대가 함께 모여 살았던 과거와 달리 1인 혹은 2인의 소규모 가구로 변화하고 있다. 즉, 지금의 사회는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개인의 행복과 만족이 중요시되는 사회로 변하는 전환점이다.

1980년대를 지나며 정부의 가족계획 정책에 따라 자녀를 많이 낳지 말자는 사회적 요구로 인해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대가족 형태보다 자녀에게 집중할 수 있고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는 핵가족으로 가족의 형태가 변화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로 오늘날 청소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주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미디어도 '세상의 중심은 나' 혹은 '내가 있어야 세상이 있고, 내가 존재해야 모든 것이 존재한다' 라는 개인주의 세계관을 반영한 광고를 보여 주면서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결국, 청소년들은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에 따라 미디어에 나타나는 세계관을 무의식적으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그렇게 자신의 토양에 공동체보다 개인의 이익과 만족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적 세계관을 심는 것이다. 물론 개인의 만족과 행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인주의 세계관은 철저하게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두고 자신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다. 따라서 개인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청소년들은 자신 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만이 중요하다라는 일차원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스티브 윌킨스와 마크 샌포트는 『은밀한 세계관』이라는 책에서 개인주의 세계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개인이 일차적인 실재이며 우주와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신념이다. 그래서 개인주의는 적절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나의 특별한 관심과 목표를 최대한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개인은 자율성과 자기 충족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에 도움이 될 때에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다. 가족, 공동체, 사회는 기껏해야 이차적인 고려 대상이다.<sup>33</sup>

개인주의의 일차적인 실재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세계관은 청소년의 신앙에 큰 위협 요소가 된다.

개인주의가 신앙에 미치는 영향은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야’, ‘종교는 개인적인 일이지’,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렇다고 꼭 교회에 갈 필요는 없잖아’ 라는 혼한 말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개인주의는 하나님이 각 개인의 삶에 관심을 갖고 개입하신다는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매우 극단적으로 받아들여 더 이상 기독교 진리가 되지 못하게 한다.<sup>34</sup>

개인주의는 모든 기준을 자신에게 둔다. 개인의 행복과 만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여긴다. 더 나아가 우주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신의 자리로 만들려고 한다. 결국 하나님은 필요

<sup>33</sup> Steve Wilkens, Mark L. Sanford, 은밀한 세계관, 안중희 역 (서울: ivp, 2013), 31.

<sup>34</sup> Ibid., 33.

없고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 자신의 기준만 존재하게 된다. 이는 개인주의 세계관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 소비자 중심의 쾌락주의 세계관: 소비주의

“소비자 중심의 쾌락주의는 소비를 통한 개인적인 즐거움이 인생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으로 나를 기분 좋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sup>35</sup>이다. 청소년들은 소비의 주체가 되어 부모의 도움으로 소비에 치중한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생산 활동의 주체가 아닌 청소년들은 경제 불황이나 경기 침체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재호는 이러한 소비를 쾌락주의로 표현한다.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소비의 대상이다. 소비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감각적 쾌락을 누리는 것이 인생이 추구하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식주에서부터 문화적인 영역까지 인생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쾌락주의다.”<sup>36</sup>라고 말한다.

최근 힙합 가수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과 사회 전반에 ‘플렉스’라는 단어가 유행이다. “플렉스는 원래 ‘구부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운동으로 다져진 근육을 자랑할 때 쓰이면서 ‘과시하다’라는 의미가 더해졌고, 1990년대 이후에는 ‘재력, 귀중품 등을 과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sup>37</sup>되고 있다. 이러한 플렉스는 소비를 통해 만족을 얻고자 하는 소비주의 세계관의 단면을 잘 보여 주는

<sup>35</sup> 최재호, *믿음은 세계관의 전쟁이다*, 178.

<sup>36</sup> Ibid., 179.

<sup>37</sup>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934/> (2020년 2월 15일 접속).

사례이다. 그렇다면 소비주의 세계관은 어떻게 청소년들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이 질문에 스티브 윌킨스와 마크 샌포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비주의 세계관은 처음에는 상대적이었던 선(소비)을 결국 절대적인 선으로 대체한 관점이다. 소비주의는 부와 그에 수반되는 모든 것을 축적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소비를 절대화한다. 소비주의는 우리의 모든 필요는 물질적 소비로 충족될 수 있다고 말한다. 더 많이 소비할수록 더 많은 욕구가 채워진다.<sup>38</sup>

최재호는 쾌락주의에서 인간의 행복은 감각적인 쾌락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철학적 체계가 행복을 최고의 선으로 추구하지만 우리가 흔히 쾌락주의라고 이름을 붙이는 가치체계는 인간의 행복은 감각적인 쾌락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주장하는 가치체계를 의미한다. 결국 소비자 중심적 쾌락주의는 모든 형태의 소비를 통해서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생활양식이다.<sup>39</sup>

결론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쾌락주의 세계관에서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비라는 행위를 통해서 만족과 쾌락을 얻고 기쁨을 느끼는 것이 최고의 선이자 가치라는 것이다.

소비 행위는 즉흥적이고 자극적인 문화에 길들어 있는 청소년의 감각적인 특성과 잘 맞아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반복적으로 소비하면서 소비를 통한 쾌락과 만족을 삶의 우선 가치로 여기게 된다. 종종 가지고 싶은 것이 생기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꼭 소유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

<sup>38</sup> Wilkens, *은밀한 세계관*, 54.

<sup>39</sup> 최재호, *믿음은 세계관의 전쟁이다*, 179.

자기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관심이 집중되며, 그 상품은 자신의 취향과 만족감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다.”<sup>40</sup> 원하는 상품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 결국 그 상품을 얻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소비자 중심의 쾌락주의 세계관에 젖은 청소년의 단편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종합하면 소비를 통한 욕구 충족은 소비주의 세계관의 핵심 사상이자 내용이며 청소년에게 “욕구 충족이 구원의 핵심 내용”<sup>41</sup>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청소년들이 소비를 통해 소유할 수 있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게 되면서 신앙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 소비주의는 단순히 충동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도록 만드는 자극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하는 하나의 총체적인 세계관이다. 이는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 패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경험에도 영향을 미친다.<sup>42</sup>

#### 과학적 자연주의 세계관: 물질주의와 진화론

“자연주의 세계관은 ‘물질은 영원히 존재하며, 존재하는 것이 전부다. 그리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자연주의에서는 우주의 본질이 그 중심요소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 무대에서 사라지고 우주 자체가 영원한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sup>43</sup> 이러한 자연주의 세계관은 더 나아가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연결된다. 찰스 콜슨과 낸시

---

<sup>40</sup> Ibid., 223.

<sup>41</sup> Wilkens, *은밀한 세계관*, 54.

<sup>42</sup> 최재호, *믿음은 세계관의 전쟁이다*, 223.

<sup>43</sup> James Sire,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김현수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9), 86.



피어시는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자연주의 세계관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자연주의는 자연의 힘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 자연주의는 태초에 입자들과 맹목적이고 논리도 없는 자연법칙만이 존재했다고 말한다. 자연은 양자(quantum)적인 변이를 통해 무에서 우주를 창조해 내었다. 그 자연이 생명이 살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갖춘 이 행성을 만들어 내었고, 그 자연이 화학물질을 끌어당겨 최초의 생명 세포를 만들어 내었다. 자연은 다윈의 메커니즘을 통해 진화하여 복잡한 생명 체계를 만들고 마침내 의식과 지능을 갖춘 놀라운 인간을 만들어 내었다.<sup>44</sup>

인간의 근원에 관한 질문에 있어 자연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신의 개념을 배제한다. 그리고는 물질이 다양한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발전, 변이, 재조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진화해 마침내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즉, 자연주의 세계관은 물질에 기반을 둔 세계관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부정하고 우주의 본질을 강조한다. 이에 제임스 사이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주는 초월적 존재와는 무관한 하나의 궁극적인 실재다. ‘신’이나 ‘창조자’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無)에서 무(無)가 나온다. 무엇인가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전부터 무언가가 항상 존재했다. 그러나 자연주의자들은 말하기를 그 무엇이란 초월적 창조자가 아니라 우주의 물질이라고 한다. 우주의 모든 물질은 어떤 형태로든 항상 존재했다.<sup>45</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주의 세계관의 큰 위협은 바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인간과 이 세계가 자연법칙에 따라

---

<sup>44</sup> Charles Colson, Nancy Pearcey,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정영만 역 (서울: 요단, 2002), 92.

<sup>45</sup> Sire,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87.

시작되었다고 믿으며, 더 나아가 그것이 물질이라고 본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와 은혜는 존재하지 않으며, 자연법칙으로 생겨나는 것들이 진리라고 믿게 만든다. 이러한 세계관은 청소년들의 신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는 호기심과 지식적 의문이 폭발하는 시기이다. 정서적인 불안감도 커지면서 삶과 존재에 관해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질문하면서 존재에 대한 인식의 사고를 확장해 나간다. 또한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고민하면서 인간의 근원에 대한 사고를 확장한다. 하지만 청소년 대부분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인간을 우주의 한 존재로 인식하고 우주에서 떨어져 나온 물질적인 개념으로 인식한다.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을 통해 ‘진화론’ 적인 사고방식을 배우고 그것을 정답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의 무의식 속에는 ‘진화론’에 대한 익숙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 청소년기에 배우는 ‘진화론’으로 인해 인간의 존재를 진화의 결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청소년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진화적인 사고방식과 자연주의 세계관에 입각한 청소년들은 철저하게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연법칙의 원리<sup>46</sup>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신비를 물질의 진화로 격하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자연의 질서인 자연법칙으로 대체해 버린다. 더 나아가 종교도, 신앙도, 신도 존재하지 않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여기게 된다. 자연주의 세계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물질이고 그 물질들이 순간적인 빅뱅과 오랫동안 진행된 진화를 통해 지금까지

---

<sup>46</sup> 자연법칙의 원리는 불변하고 예외가 없다는 것이다. 자연법칙은 불변하는 법칙이 질서라고 강조하며, 이는 변함없고 한결같이 작동한다고 본다. 자연법칙은 같은 조건과 같은 상황이면 같은 결과를 도출한다고 여긴다.

이어오고 있다고 믿게 만듦으로써 기독교가 담고 있는 은혜, 구원, 부활, 천국을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즉, 오직 자연법칙에 기준하는 물질만이 유일한 길임을 강조한다.

####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 동성애와 인권

“세속적 인본주의는 말 그대로 세속의 세계인 물질로 이루어진 현실 세계중심주의와 인간 본위의 인간중심주의가 결합된 세계관”<sup>47</sup>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인본주의의 특징은 “인간에게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태도, 즉 인간의 열망, 사고, 소망이 있다는 태도 전체를 말하며 각 개인으로서 인간의 가치를 강조”<sup>48</sup>한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인권, 평등, 차별 금지, 동성애와 같은 단어가 상당히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으며, 청소년 사이에도 거부감 없이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도 학생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폐지되거나 축소되고, 교사의 권위보다 학생의 인권을 더 중요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여성의 권리가 신장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사회 전반에 여성들의 목소리가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즉,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인간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은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마침내 폭발한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게 만드신 것이 창조의

<sup>47</sup> 정소영,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세계관 특강*, 90.

<sup>48</sup> Sire,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107.

섭리이자 기독교적 인간관의 출발점이다. 기존에는 성(性)을 태어날 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최근에 성은 개인의 정체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사랑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성전환자가 사회 전반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심지어 하리수라는 성전환자가 방송에 노출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성전환자들이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일반인까지 동성애 성향을 밝히기도 했다. 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일에 자주 노출되면 외부 자극에 민감한 청소년들은 쉽게 휩쓸리게 된다. 결국 성의 경계가 흐릿해질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성 인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내면에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 세계관이 자리 잡게 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정해 주신 고유의 성을 낮은 가치로 평가하고 성에 대한 가치를 떨어트린다. 따라서 창조의 섭리와 신비는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다.

이러한 동성애적 세계관은 “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퀴어신학’ 을 만들어서 예수님과 열두제자도 동성애 관계”<sup>49</sup>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하나님의 최고 권위인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초월해 인간 스스로 말씀을 작위적으로 판단하기에 이른다.

결론적으로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은 인간 자체에 가치가 있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절대적인 선에 기인하며, 또한 인간으로서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선이라고 강조한다. 심지어 성의 역할과

---

<sup>49</sup> 이태희, *동성애가 바뀌버릴 세상 세계관 전쟁*, 111.

생물학적인 부분까지도 인간의 선택을 선으로 여기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결국 절대적인 선은 인간 자신의 욕구와 기준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관은 청소년에게 위협이 된다.

### 제 III 장

#### 통성경적 세계관의 이해

##### 통성경이란

조병호는 “통(通)이란 서로 다른 영역이나 방식, 관점이나 입장을 각각 이해하고 이어서 다름의 사이에서 그 관계성을 파악하고, 마침내 총체적 인식을 풍요롭게 하는 유익을 발생시키는 사고방식”<sup>50</sup>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통(通)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 대상이 지닌 여러 요소를 두루두루 섭렵하는 것”<sup>51</sup>이라고 말한다.

서구의 성경 읽기 방식은 문법적이며 부분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동양의 방식은 부분에 중심을 두기보다 전체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잘 모르는 이야기도 열 번씩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되는 것처럼 부분보다 전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읽기 방법이다. 통성경은 서구의 방식과 동양의 방식을 조화롭게 구성해 숲과 나무를 보듯이 성경의 전체와 부분을 균형 있게 보는 성경 읽기 방법이다. 또한 구약과 신약을 약속과 성취의 개념으로 바라봄으로써 구약과 신약을 따로 떨어뜨리지 않고 성경 전체를

---

<sup>50</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8), 67.

<sup>51</sup> Ibid., 69.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이해하는 성경 읽기 방법이다. 그러므로 통성경은 “성경 66권 전체를 파편화(fragmented books and multiple disconnected stories)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one story)로 소리 내서 읽는 것”<sup>52</sup>이며, 성경 66권을 하나의 관점으로 읽어 나가는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통성경은 성경 66권을 하나의 이야기로, 시간·공간·인간을 통(通)으로, 개인·가정·나라를 통(通)으로, 제사장 나라·5대 제국·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본다. 통성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간·공간·인간을 통(通)으로

“성경에는 대략 2,000여 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 그리고 5,000명의 인간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것을 각각 별개로 보아서 안 되고 반드시 통(通)으로 함께 보아야 한다.”<sup>53</sup> 즉, 성경을 볼 때 단순하게 구약과 신약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다. 또한 장과 절에 빠져서 성경을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통성경이다. 조병호는 저서 『성경통독과 통신학』에서 시간·공간·인간을 통으로 보는 방법에 관해 말한다.

성경에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 시간과 공간과 인간은 각각 별개로 보아서 안 되고, 반드시 통(通)으로 함께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은 성경 속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그 절기가 행해지는 장소가 있고, 그 시간과 그 장소에는 인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 속의 2,000여 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sup>52</sup>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6), 11.

<sup>53</sup> Ibid..

공간과 5,000여 명의 인간을 시간 따로, 공간 따로, 인간 따로, 파편처럼  
별개로 보지 않고 그 시간, 그 공간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지 통(通)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성경을 통(通)으로 보는 것이  
바로 통(通)성경이다.<sup>54</sup>

따라서 성경을 볼 때 인물을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을 함께 살펴본다면  
단순히 평면적으로 머물러 있던 성경이 입체적으로 다가오면서 더욱더 넓은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 개인 · 가정 · 나라를 통(通)으로

“성경 속 모든 이야기는 개인 · 가정 · 나라를 통(通)으로 함께 보아야  
한다.”<sup>55</sup> 인간을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을 함께 보고, 개인과 가정, 더 나아가  
나라를 통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조병호는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개인, 가정, 나라를 한 번에 묶어서 보는 방법을 설명한다. 먼저 구약의 사건을  
살펴본다.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째 되던 시점에 갈대 상자에 놓인 것은 모세 개인의  
일이다. 동시에 그것은 모세의 아버지가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어머니가  
그를 그 안에 태웠으며, 누나가 갈대 상자를 따라가며 지켜본 모세의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 가정이 어린 모세를 죽을 확률 99.9%인 갈대  
상자에 태워 나일강에 떠내려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가정이 히브리  
민족이라 불릴 만큼 하나의 민족은 이루고 있었으나 나라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sup>56</sup>

구약의 사건을 살펴볼 때 성경 본문을 부분적으로 읽으면 모세 개인의

<sup>54</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19.

<sup>55</sup>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1.

<sup>56</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20.



고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가정과 나라를 통으로 보면 이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모세가 겪은 어려움과 역경의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모세 개인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모세가 갈대 상자에 태워진 채 나일강에 떠내려 간 이유를 단지 모세의 고난으로 어림짐작했을 뿐이다. 하지만 성경을 통으로 보면 모세의 사건에 감춰진 모든 부분을 자세하게 알게 된다. 신약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이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도 개인, 가정, 나라에 관한 이야기로 통으로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 개인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한 가정의 이야기이다.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신 것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식민지 백성에게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즉, 로마 제국과 유대 나라 이야기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와 함께한다는 것이다.<sup>57</sup>

이 사건 역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실을 개인, 가정, 민족의 영역으로 확대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때 성경 뒤편에 가려 있던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한결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제사장 나라 · 5대 제국 · 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제사장 나라 · 5대 제국 · 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보아야 한다.”<sup>58</sup> 조병호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출애굽기 20장 22절을 제사장 나라의

<sup>57</sup> Ibid., 21.

<sup>58</sup>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3.

헌법 제1조라고 말한다.<sup>59</sup> 제사장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권 안에 들어 있는 나라이지만 그 나라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세계관과 법으로 통치된다. 가령 제사장 나라는 수직적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제국들과 달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법으로 통치되는 민족과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라고 권면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끔 5대 제국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 그 부분을 조병호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이사야>는 앗수르 제국을,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을,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성경 속 명절인 수전절은 헬라 제국과 깊은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사형 틀이기에 신약성경과 로마 제국은 떼려야 뗄 수 없을 정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 중에 5대 제국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신 것이다. 구약성경은 제사장 나라 이야기이고, 신약성경은 제사장 나라를 담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계경영을 위해 사용하신 5개의 제국인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들어 있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보는 것이 통성경이다.<sup>60</sup>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과 사명을 기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과 죄악으로 그 사명을 저버렸다. 그때 하나님은 5대 제국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경영을 이어가셨다. 그런 중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sup>59</sup>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통독원, 2018), 33.

<sup>60</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22-23.

보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끔 권면하셨다.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내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사장 나라로부터 5대 제국에 이르기까지 통으로 보아야 한다. 그럴 때 더욱더 효과적이고 입체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

### 통성경의 세계관

통성경 방식으로 성경을 보면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라는 두 개의 나라로 구분할 수 있다.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는 각 나라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세계관이 존재한다. 그 시대 사람들 역시 의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그 나라의 세계관 속에서 살았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역시 선택의 순간에 그들의 세계관에 따라 결정하고 판단했다. 모든 것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묶어서 보아야 통성경적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다. 즉, 통성경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다. 그 안에 있는 나라는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으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이다. 이는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는,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 이해해야 한다.

세계관을 단순히 하나의 가치관으로 인식해 어느 한 면만 집중해서 볼 것이 아니라 통성경의 세계관처럼 다양한 이야기와 가치들을 하나로 묶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통성경적 세계관 안에는 하나님의 용서, 이웃 사이의 나눔과 거룩, 민족 사이의 평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며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는 기독교적 가치가 담겨 있다. 통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이러한 가치들을 하나로 연결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어떤 바탕 위에 정립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제사장 나라의 세계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 관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언급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자 함이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 복의 통로가 될 제사장 나라를 세워 세상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자 하셨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꿈꾸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리셨다. 오랜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 나라를 세울 만큼 번성하자 하나님은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셨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쌍방 간의 합의를 통한 계약으로 완성되었다. 그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sup>61</sup>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계약에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sup>62</sup>라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꿈이 담겨 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며, 세계가 다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고백하는 제사장 나라의 출발이자 시작이다. 이러한 제사장 나라는 제사를 중심으로

<sup>61</sup>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8), 44-45.

<sup>62</sup> 출애굽기 19장 5절.

운영되는 나라이며, 3가지 방법의 5가지 제사와<sup>63</sup> 3개의 명절<sup>64</sup>과 3개의 절기<sup>65</sup>가 정해졌다. 제사장 나라의 5가지 세계관은 다음과 같다.

#### 유월절 어린양으로 시작한 나라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양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지내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해 유월절 어린양으로 제사장 나라의 첫 디딤돌을 놓았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 달을 새로운 달의 시작 즉, 해의 첫 달로 정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새로 정한 첫 달의 10일에 가정마다 흠 없는 1년 된 어린 숫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밤에는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셨다. 그 유월절 밤에 생명을 건진 히브리인 가정의 장자들 수를 세어 보니 자그마치 2만 2,273명이었다. 애굽에서 보낸 첫 번째 유월절에 어린양의 피가 히브리인 장자 2만 명 이상의 생명을 살린 것이다.<sup>66</sup>

즉, 제사장 나라는 이성과 경험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닌 제사장 나라의 율법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작하는 나라이다. 그 첫 발걸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 민족과 모든 민족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입애굽하여 민족을 이룬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제국의 길로 가지 않고 제사장 나라로서

<sup>63</sup>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sup>64</sup> 유월절, 칠칠절(오순절), 초막절(장막절).

<sup>65</sup> 안식일, 안식년, 회년.

<sup>66</sup>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53-56.

첫걸음을 떼게 한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양이다.

###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인간은 죄를 지으면 스스로 용서를 이루기 어렵다. 윤리와 철학 등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논리와 시스템으로도 온전한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죄책감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으로 인해 죄의 완전한 해결이 어렵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히브리 민족 각 가정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 이는 어린 양의 피 그 자체가 주술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받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른 그들의 ‘순종’ 과 어린 양의 희생제물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 가 히브리 가정의 장자들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이다.<sup>67</sup>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희생제물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고 구원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의 법인 5대 제사를 통해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다. 제사장 나라는 이 하나님의 용서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고 베풀어지는 나라이다.

###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제사장 나라는 3대 절기(안식일, 안식년, 희년)를 통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삶을 회복한다. 레위기 25장 3-7절<sup>68</sup>에 안식년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

<sup>67</sup> Ibid., 56.

<sup>68</sup> 레위기 25장 3-7절. “너는 육 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육 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 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을 쉬게 한다. 6년 동안 밭에 파종하면 안식년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땅에 남아 있는 씨앗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식물과 곡식의 소출이 생긴다. 이 소출은 그 땅의 주인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가져가게 한다. 또한 희년이 되면 50년간 지속했던 땅의 소유권을 재분배한다. 이렇듯 제사장 나라에서는 3대 절기를 통해 한 사람이 독점하거나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경제 재분배의 실천이 이루어진다. 조병호는 이에 관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추수 때에 밭 모퉁이 일부를 남겨 두고, 포도를 수확하면서 포도를 나무에 조금 남겨 두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고 말씀한다. 인간은 죄인일 뿐, 결코 거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웃과 나눔이 있는 삶을 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제사장 나라는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서로 이웃과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는 나라이다.<sup>69</sup>

이렇듯 제사장 나라는 자신만의 행복과 가치가 중요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이 중요한 세계관으로 자리 잡아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한다.

####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하기 위함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맺은 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다음에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sup>69</sup>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74.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스라엘은 여정 중에 에돔 족속이 사는 지역을 통과해야 했다. 그런데 에돔 왕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심지어 통행세를 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이스라엘은 에돔 족속과의 싸움을 피해 먼 길을 돌아갔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다. 이렇듯 이스라엘이 에돔과 싸워 이길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우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에돔과 싸우지 말고 다른 먼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에돔이 야곱의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이므로 그들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형제 나라인 에돔과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암몬과 싸우는 것도 원치 않으셨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암몬 역시 형제 나라로 여기시기 때문이다. 즉, 제사장 나라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형제 나라와 싸워서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sup>70</sup>

또한 제사장 나라는 자주국방을 표방하며 물리적인 힘으로 국가를 지키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제사장 나라는 성전을 중심으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의 3대 절기로 민족과의 평화를 유지하는 나라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은 3대 명절에 성전에 모이며, 그 규모는 약 3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명절에 모여 대내적으로 결속을 다지고, 모임들을 통해 그동안 쌓인 오해를 풀고 화해할 수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3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이스라엘 성전을 중심으로 모임으로써 주변국의 침략 행위를 자연스럽게 멈추게 하는 전쟁 억제 효과도 얻을

---

<sup>70</sup> Ibid., 79-80.



수 있었다. 즉, 제사장 나라는 칼과 무기로 평화를 유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을 지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주변 나라와 안녕을 유지하고 평화를 도모했다. 하나님은 정복과 침략이 아닌 제사장 나라의 세계관을 통해서 이웃 나라와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 일에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다.

###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

제사장 나라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의 핵심은 제사이며,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과 제사에 쓰이는 제물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그 핵심 요소이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언약제가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성전을 중심으로 삶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렇듯 제사장 나라는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나라이다. 조병호는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제사장은 법궤(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은 거룩한 곳이었다. 때문에 법궤를 모신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제사장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중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은 유월절에 목숨을 건진 이스라엘의 장자에서 그 개념이 나왔다.<sup>71</sup>

제사장 나라는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성전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따라서 제사장 나라에서는 장자인 제사장을 통해, 성전에서, 제사장 나라의 핵심 행위인 제사를 계속 이어간다.

---

<sup>71</sup> Ibid., 48.

##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나라는 서로 상충하는 다른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다시금 새롭게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다.”<sup>72</sup>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생들의 화해자로 그리고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고, 그 순간 ‘제사장 나라’ 가 그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에 담기게 되었다.”<sup>73</sup>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별개의 존재로 볼 수 없다. 제사장 나라의 5가지 법칙이 예수님의 3가지 선언<sup>74</sup>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5가지 특징으로 발전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완성된 나라이다. 또한 제사장 나라의 모든 가치와 세계관이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개념 속에 고스란히 담기므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별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살펴볼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세계관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어떤 행동 양식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sup>72</sup> Ibid., 212.

<sup>73</sup> 김한성, “통(通)성경 방법을 통한 성경듣기에 대한 연구,”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루신학대학교, 2016), 53.

<sup>74</sup> 예수님의 세 가지 선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누가복음 7장 27절에 “기록된 바”라고 말한 말씀은 구약의 37권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다. 구약의 기록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된다는 이야기이다. 둘째,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라고 말씀하시며 제사장 나라의 종료는 세례의 때까지라고 선포하셨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선언으로 제사장 나라는 더 큰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었다.

###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시작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출발은 제사장 나라의 출발과 비슷하다. 제사장 나라의 유월절 어린양의 피가 이스라엘 장자들의 생명을 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린양이 되어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민족과 사람이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 하나님에게 나아갈 길이 없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듯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에 관해 조병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유월절 어린양처럼 하나님의 어린양이 희생제사의 제물이 되신 것이고, 단번의 제사를 통해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죄를 한꺼번에 다 담당하신 인류 구원의 대속 사역이었다. 제사장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 셀 수도 없는 많은 양과 소들이 제물로 죽어 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제물이 되심으로 더 이상 양이나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sup>75</sup>

###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제사장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큰 죄였다. 신명기 5장 11절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한다. 제사장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 때문에

---

<sup>75</sup>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226-27.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 주시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이다.<sup>76</sup>

반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으며,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이다.”<sup>77</sup>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것과 연결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으로 적용된다.

####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살펴보면 한 영혼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한 영혼의 소중함을 몸소 실천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참새 두 마리보다, 양 한 마리보다, 돼지 2,000마리보다

---

<sup>76</sup> Ibid., 239.

<sup>77</sup> Ibid., 240.

그리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한 영혼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다.”<sup>78</sup> 누가복음 8장 22절<sup>79</sup>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은 거라사에 머무는 광인을 고치기 위해 바쁜 사역 중에 일부러 시간을 내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셨다. 귀신들린 광인을 고쳐 주기 위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신 것이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풍량이 심하게 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지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곤함과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귀신들린 한 영혼에게만 집중하셨다. 그리고 귀신들린 광인을 고치고 구원하기 위해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셨다. 돼지 2,000마리의 가치는 가볍게 여길 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모두가 버린 거라사의 광인을 위해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셨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한 영혼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 주시는 장면이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영혼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에 대해서도 감도 잡지 못한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sup>80</sup>

---

<sup>78</sup> Ibid., 232.

<sup>79</sup>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sup>80</sup>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236

###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

“십자가는 고대 로마 시대의 사형 집행을 위한 도구였다. BC 70년경 로마 사회의 근간을 흔들었던 노예들의 반란인 스파르타쿠스의 난<sup>81</sup>이 힘겹게 진압되자, 로마는 다시는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무자비한 십자가 처형을 보여 주었다.”<sup>82</sup> 이때부터 시작해 십자가는 잔인한 형벌의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십자가는 사형 도구에서 구원과 은총의 상징이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킨 상징이 되었다.”<sup>83</sup>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맡은 사명을 완수한 승리자의 선언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의 임무를 완성하시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다. 이는 아론으로부터 시작되어 이스라엘 대제사장만이 누렸던 특권 사명과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서 감당했던 제사장 나라가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의미했다. 동시에 제사장 나라를 수렴하는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때부터 제사장을 통한 레위기 제사는 잘못된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예수

---

<sup>81</sup> 로마제국에서 일어난 노예 반란으로, 주도자인 스파르타쿠스의 이름을 따서 지칭했다. BC 73년 검투사 스파르타쿠스가 74명의 검투사를 이끌고 도망가자 로마군은 3,000명의 토벌대를 투입해서 제압하려 했다. 그러나 검투사들과 인근 농장 노예들의 합세로 반란군의 규모가 10만 명까지 커지게 되었고, 3년여의 전투 끝에 크라수스가 이끈 8개 군단이 반란군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진압했다. 살아남은 노예군 6,000명을 아피아가도 양쪽에 3,000명씩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한 사건이다.

<sup>82</sup>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246.

<sup>83</sup> Ibid., 247.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실현된 나라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과 은총의 상징이자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 된다.<sup>84</sup>

####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

“제사장 나라가 성전과 장자로 이끈 나라였다면,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제자로 이끄는 나라이다. 이는 성전이 교회로 그리고 장자가 제자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sup>85</sup>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성전 제사와 제사장의 임무가 종료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sup>86</sup> 하나님 나라는 이제 성전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외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sup>87</sup> 하나님 나라는 폐쇄적으로 닫혀 있는 구조가 아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나라이다. 누구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

<sup>84</sup> Ibid., 251-54.

<sup>85</sup> Ibid., 221.

<sup>86</sup> Ibid., 259.

<sup>87</sup> Ibid., 260.

## 청소년을 위한 통성경적 세계관

성경 속에는 많은 나라가 등장하고 사라진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이다.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는 각 나라만의 세계관이 존재한다.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이 세대의 풍조<sup>88</sup>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이 세대의 세계관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여 이 세대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을 확립해야 한다. 특히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세계관의 확립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통성경에 나타나는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세계관이다. 따라서 필자는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하나로 통합해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가르칠 기독교적 세계관을 ‘성서사전 세계관’ 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이는 성경적 세계관, 서로를 위한 세계관, 사랑의 세계관, 전도(顛倒)의 세계관으로 구성되며 각 세계관의 첫 글자를 따서 ‘성서사전 세계관’ 이라고 명명했다. 필자가 주장하는 ‘성서사전 세계관’ 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up>88</sup> 이 세대의 풍조는 이 세대를 사로잡고 있는 세계관의 또 다른 이름이다.



### 성경 중심적 세계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세상의 참 이야기라고 진정 믿는다면, 세계관도 성경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sup>89</sup> 청소년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의 안경은 바로 성경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의 토양도 성경이다.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세상을 판단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성경 구절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즉, 성경의 단편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세계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형성한 세계관을 가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성경만을 보거나 그 자료만을 사용해서 세계관을 구성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성경이 제시하는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sup>90</sup>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으로 구성된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타락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 구속의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완성된다. 이처럼 성경적인 관점을 세상의 이야기에 대입해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다. 즉, 성경을

---

<sup>89</sup> Michael W. Goheen, Craig G. Bartholomew, *세계관은 이야기다*, 윤종석 역 (서울: ivp, 2018), 91.

<sup>90</sup> 이승구,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25.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들을 연구하고, 성경에 있는 무수한 사건 속에서 해답을 찾아, 그 해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시험 문제는 교과서를 바탕으로 출제된다. 그리고 학생들은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푼다. 이처럼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실제이다. 청소년들은 성경의 내용을 기준 삼아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단순하게 일부 성경 구절로 성경을 편협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통성경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나 문화를 이해하거나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성경의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다. 지금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세계관이다.

### 서로를 위한 세계관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세계관의 기본은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이 세계관은 인간은 혼자서 살아가는 독단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에서는 인간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웃과의 나눔, 평화를 강조한다. 이러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함께 사는 법에 대한 가르침이다.

지금 이 시대는 개인주의적 세계관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다. 그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입시가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상대적인 평가로 이뤄짐에 따라 청소년들은 적자생존, 승자독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 속에 살아간다. 이런 상황에서 나눔과 배려, 희생과 존중의 가치는 함몰된 채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 이웃을 향한 나눔과 배려는 무가치한 일로 치부된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세계관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한편 필자가 주장하는 서로를 위한 세계관은 자신에게만 국한된 개인주의적 세계관을 타파하고 주변의 이웃을 돌보고 나누며 베푸는 세계관이다. 사람을 수단과 방법, 목적으로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와 나눔, 희생과 존중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즉,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로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과 나누고 베풀게 했던 그 세계관이 지금 시대의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청소년들의 삶에 필요한 세계관이다. 결코 세상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사랑의 세계관: 십자가

최용준은 『세계관은 삶이다』에서 인간의 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고귀한 존재였지만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따라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한다.<sup>91</sup>

---

<sup>91</sup> 최용준, *세계관은 삶이다* (서울: CUP, 2016), 77.

그렇다면 죄는 무엇일까? 성경, 특히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뜻(생각)에 따라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라고 말한다. 이렇게 될 때, 인간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삶이 된다.<sup>92</sup>

신국원은 『니고데모의 안경』에서 세상에서 죄와 악의 근원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상에서는 죄와 악의 근원을 흔히 구조적인 결함에서 찾는다. 구조적 결함이란 세상과 인간성이 본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세상이 악한 것이 구조적인 결함 때문이라면 인간에게는 책임이 없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산 첫날부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sup>93</sup>

오직 성경만이 죄와 악을 명백하게 인간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타락은 본래 세상 어디에 악 또는 악의 씨앗이 있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성경은 결코 선과 악이 본래부터 존재했다는 이원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악은 철저하게 후천적이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순간 세상에 나타났다.<sup>94</sup>

유경상과 신국원은 인간은 결코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한다. 인간은 죄에 대해 용서조차 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다. 그렇기에 지은 죄를 해결하는 일은 인간의 능력 밖이므로 죄의 굴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은 사랑과 용서를 잃어버린 시대이다. 문화의 발달과 시대의 흐름 속에 사람들은 점점 인내를 잃어가고, 사소한 잘못이나 사건에도 용서하기는커녕 책임을

<sup>92</sup> 유경상, *크리스천 씽킹* (서울: 카리스, 2019), 85.

<sup>93</sup> 신국원, *니고데모의 안경*, 91.

<sup>94</sup> *Ibid.*, 92.

묻고 응징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청소년들은 아직 정서와 심리가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에 서툴다. 세상은 용서보다 정의를 강조하며 용서의 의미를 많이 퇴색시킨다. 우리 청소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그 생각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에 대한 용서가 모두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 필요하다.

사랑이 메말라버린 시대, 죄악이 삶을 주장하는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말처럼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세계관은 사랑의 세계관이다. 다시 말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주어진 삶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세계관이다.

### 전도의 세계관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세계관은 ‘전도의 세계관’이다. 이 세계관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전도(傳道)<sup>95</sup>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가치관이 반대로 되는 전도(顛倒)<sup>96</sup>의 의미도 포함한다.

<sup>95</sup>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kdic&query=%E5%82%B3%E9%81%93&ie=utf8&sm=tab\\_nmr](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kdic&query=%E5%82%B3%E9%81%93&ie=utf8&sm=tab_nmr) (2020년 3월 5일 접속).

<sup>96</sup>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y\\_top&where=kdic&query=%E9%A1%9A%E5%80%92&oquery=%E5%82%B3%E9%81%93&tqi=UF5fprvmsssnXB3qlsssstk0-465362](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y_top&where=kdic&query=%E9%A1%9A%E5%80%92&oquery=%E5%82%B3%E9%81%93&tqi=UF5fprvmsssnXB3qlsssstk0-465362) (2020년 3월 5일 접속).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강조한다. 예수님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누누이 강조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역시 한 영혼의 가치에 집중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사마리아 땅을 지나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셨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돼지 2,000여 마리를 희생시키셨다. 지금의 세계관과 비교할 때 이는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세계관처럼 보인다.

지금 시대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미명하에 다수결이라는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소수보다는 다수의 행복과 권익에 앞장서고 있다. 물론 소수의 의견을 중요시 여기는 모습도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다수에 의한 힘의 논리로 세상은 움직인다. 이런 흐름 속에서 청소년들도 소수보다는 다수의 개념에 집중한다.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하는 것은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로 폄하하고, 철저하게 다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한 영혼의 가치에 집중하셨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는 전도된 가치이다.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들도 세상의 가치에서 전도된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바로 전도의 세계관이다.

이 세계관은 세상의 가치와 차별된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영혼 자체에 집중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랑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면 나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더 나아가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세계관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치를 폄하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 시대는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다. 이제 청소년들의 영혼 회복이 필요하다. 전도의 세계관이 필요하다. 이 세계관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 준다.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작은 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큰 자로 살게 한다. 즉, 영혼의 회복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전도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작은 것이라도 큰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또한 회복할 수 있기에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가치관이다.

### 세계관 형성과 통성경

청소년의 세계관 형성에 통성경이 효과적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병호가 말하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나라에 관한 논의는 한국 교회에서 누구도 언급하거나 시도한 적이 없는 특별한 접근이다.

통성경을 통해 구약에 등장하는 제사장 나라와 신약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속에 나타난 각각의 세계관을 살펴볼 수 있다. 청소년의 세계관 형성은 성경에 나타나는 나라에 해답이 있다. 통성경은 그 시대, 그 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주며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해답을 제시한다.

통성경은 가르치고 배우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청소년이 선호하는 부분과 통성경의 특징이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통성경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역동성

통성경은 역동적이다. 성경을 단편적이고 평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경에 들어가 그 상황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하는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한 특징이 있다.

청소년들은 단편적인 것보다 입체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추구한다.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 하지만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기존의 접근법은 성경을 펼치고 본문을 하나씩 읽어 가는 것에 그친다. 요절 중심의 접근 방식은 성경의 문맥과 배경, 사건의 진행 방향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게 한다. 조병호는 이런 상황을 『청소년 성경통독\_지도자 지침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하나의 말씀은 전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도 앞뒤 맥락 없이 듣게 되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가령 ‘정말 예쁘다’ 라는 말이 상황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전혀 예쁘지 않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도 기록된 상황과 맥락이 있기 때문에 전체 가운데 부분을 본다는 생각 없이 한 구절의 말씀만을 붙잡는다면, 편협한 시각에 빠지게 되고,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sup>97</sup>

이는 청소년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어렵고 지겹고 따분하게 여기고, 멀리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하지만 통성경은 성경을 역사순, 시대순으로 재배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경의 상황에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한다. 성경 밖에 있던 내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 그 중심에서 있는 것 같은 역동성을 느끼게 해 준다.

### 이야기 형식

이야기의 특징은 아무리 긴 내용이라도 듣고 나면 기억에 남는다는 점이다. 또한 부분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줄거리와 내용에 집중하게 한다. 통성경의 기본 전달구조는 이야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야기식 전달구조의 특징은

<sup>97</sup> 조병호, *청소년 성경통독 지도자 지침서* (서울: 통독원 2009) 9.



이해하기가 쉽다. 이야기는 전체적인 큰 줄기에 작은 에피소드들이 있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이야기의 전체 맥락을 알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전체를 통한 부분이 부분을 통한 전체보다 이해하기 편하듯이 이야기 구조는 듣는 이가 더 쉽고 편리하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지닌다.

이야기식 구조의 장점은 기억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 주변 상황을 모두 기억하면 좋겠지만, 세부 요소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머릿속에 남는다. 이야기의 주제가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그 주제가 삶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세계관으로 형성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기억에 남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식 구조는 부분이 아닌 전체를 기억하게 한다. 또한 이야기 내용과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아 청소년의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이야기식 구조의 또 다른 장점은 재미있다는 점이다. 성경을 이야기 형태로 구성한 통성경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성경을 단편적으로 볼 때에는 본문 내용의 전과 후가 연결되지 않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 하지만 성경을 전체로 보면 성경에 펼쳐지는 사건에 흥미를 가지게 된다.

청소년들은 재미와 흥미를 우선으로 삼는다. 그들의 문화나 삶의 방식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재미와 흥미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통성경의 이야기식 구조가 주는 흥미는 잘 맞아떨어진다.

### 공감성

통성경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세계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 청소년기는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특징이 있다. 성경을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해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그들에게 성경은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한다. 단순히 활자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하지만 통성경 방법으로 접근하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성경을 읽을 때 단어, 구절, 문장, 문단, 나아가 책을 읽지만 결국 성경 66권을 읽어 가는 동안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읽어야 한다.”<sup>98</sup> 이럴 때 성경을 자신과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청소년들은 심리적인 면에서 과도기의 상태에 있다.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들 또한 다른 이의 마음을 이해하기 원한다. 즉, 정서적인 교류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통성경을 통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게 된다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올바른 세계관이 형성될 것이다.

---

<sup>98</sup>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45.

## 제 IV 장

### 통성경을 통한 청소년 세계관 교육

II장과 III장에서는 청소년과 세계관,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그리고 필자가 청소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세계관에 관해 논했다. 이번 장에서는 통성경으로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세계관을 교육할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과정은 예배를 통한 통설교와 분반공부를 통한 가르침 그리고 세계관 형성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교육에는 반드시 목표가 필요하다. 이 교육의 목표는 세계관 형성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세계관을 형성하고, 통성경적 세계관을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삶 속에서 통성경적 세계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통성경을 통한 청소년 세계관 교육을 표로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3> 세계관 교육 프로그램

	통설교	분반공부	세계관 프로젝트
교육목표	통성경을 통한 청소년 세계관 형성		
교육내용	세계관에 관한 전체적인 강의	세계관 나누기 결단 및 다짐	‘성서사전 세계관’ 적용 및 실습
교육방식	대그룹 형태의 강의	소그룹 형태의 강의	소그룹 형태의 실습

## 통설교와 분반공부를 통한 교육

청소년의 세계관 형성을 위해서는 이 세상에 어떠한 세계관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통성경(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 이후에는 앞서 살펴본 여러 세계관에 관해서 듣고, 배우고, 생각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세계관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세계관은 거부하게 된다. 아무리 좋은 세계관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맞지 않는다면 아무런 행동의 변화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결국, 세계관의 형성은 외부의 간섭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이의 선택에 달려 있다.

### 통설교를 통한 세계관 교육

청소년 세계관 확립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설교를 통한 교육이다.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세계관에 관해서 듣고 배우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줄 방법은 설교이다. 세상적 세계관과 그와 대립하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필자가 고안한 ‘성서사전 세계관’을 설교에 녹여서 청소년들에게 전달한다.

단편적인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성경적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청소년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의 주제를 정해서 설교를 이어간다. 단순히 한가지 본문에만 국한하지 않고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서 설교한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통성경적 방법으로 해석하며, 그 해석에 세계관적 내용을 적용해 설교를 진행한다.

세계관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일수록 그 정도가 넓어지고 깊어진다. 단 한

번의 설교로 세계관이 형성될 수도 있으나 설교를 통해 반복적으로 접한다면 그 확률은 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일회성 설교가 아니라 장기간 설교를 반복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세계관이 확실하게 형성되도록 교육한다.

여기서 설교는 단순히 내용을 가르치는 강의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설교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해야 하며,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세계관을 확립한다는 이유로 예배 시간에 강의한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 강의이다. 그렇기에 설교하며 세계관을 교육할 때는 세계관의 내용이 설교 안에 적절하게 묻어 있어야 한다.

전성민은 그의 책 세계관적 설교에서 “단편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고방식과 생각의 틀을 바꾸는, 즉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설교를 세계관적 설교”<sup>99</sup>라고 말한다. 설교를 통하여서 듣는 청소년들의 세계관이 통성경적 세계관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

#### 세계관 형성을 위한 8주 통설교

청소년의 세계관 형성을 위해 8주간 통설교를 진행한다. 설교의 내용은 매주마다 통성경적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세계관의 형성과 적용이라는 관점으로 구성한다.

1주 차에는 ‘세계관의 이해’라는 주제로 설교한다. 세계관의 의미를 바라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으로 확장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

<sup>99</sup> 전성민 *세계관적 설교* (서울: 성서 유니온, 2018), 23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내용으로 설교를 진행한다.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을 통성경적 방법으로 해석하고, 그 속에 담긴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중점으로 설교한다.

2주 차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에 관해 설교한다. 이 시대를 사는 청소년들을 위협하는 세계관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이어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유혹한 사탄의 세계관에 관해서 설교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세계관과 삶의 모습을 나눈다.

3주 차와 4주 차에는 통성경적 세계관의 중심축인 구약 시대의 제사장 나라와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소유하고 끝까지 지켜낸 핵심 가치관이 무엇인지 나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설교함으로써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5가지를 가르친다.

5주 차에서 7주 차까지는 ‘성서사전 세계관’을 중심으로 설교한다. 통성경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와 나와 너, 우리라는 관점이 중요한 이유를 다룬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교한다.

마지막 8주 차에는 앞서 다룬 성서사전 세계관을 바탕으로 바벨론 포로시대에 다니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할 시간을 가짐으로써 청소년들이 성서사전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다짐하게 한다.

총 8주간의 설교 본문과 제목, 핵심주제를 도표로 정리하며 <표4>와 같다.

&lt;표4&gt; 8주간 설교 제목과 핵심주제

주	본문	설교 제목	핵심주제
1주	창 13:1-18	눈으로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세계관
2주	렘 6:19	생각의 결과	다양한 세계관
3주	출 19:5-6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의 핵심가치
4주	마 21:28-31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가치
5주	창 1:1	변하지 않는 기준	성경적 세계관
6주	룻 2:15-16	나와 너의 십자가	서로를 위한 사랑의 세계관
7주	막 5:1-20	가치의 전도	전도의 세계관
8주	단 1:1-9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세계관 실행

8주의 설교를 한 회기로 보고, 반기에 2번, 1년에 총 4번 진행되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세계관 교육은 반복할수록 더 강력하고 더 확고하게 형성되는 만큼 1년에 총 네 차례 진행한다.

8주 단위로 1년에 4번 진행되는 통설교를 연속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 <표4>와 같이 한 회기(8주) 동안 설교를 통해 배운 내용을 휴식기(4주) 동안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휴식기에는 교회력과 주제 설교를 하고, 설교에 담은 주제를 성서사전 세계관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진행한다.

&lt;표5&gt; 세계관 형성 통설교 1년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회기 (8주)	휴식 (4주)	2회기 (8주)	휴식 (4주)	3회기 (8주)	휴식 (4주)	4회기 (8주)	휴식 (4주)

청소년들은 동일한 것의 반복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회기마다 전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설교의 내용과 제목은 반드시 달라야 한다. 학생들이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제목, 내용 구성, 예화, 적용 방법 등이 전체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설교가 되어야 한다.

8주씩 진행하는 통설교의 회기별 제목과 내용을 정리하면 <표6>과 같다.

<표6> 회기별 통설교 제목과 핵심주제

	주	본문	설교 제목	핵심주제
1 회 기	1주	창 13:1-18	눈으로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세계관
	2주	렘 6:19	생각의 결과	다양한 세계관
	3주	출 19:5-6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의 핵심가치
	4주	마 21:28-31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가치
	5주	창 1:1	변하지 않는 기준	성서사전 세계관 1
	6주	룻 2:15-16	나와 너의 십자가	성서사전 세계관 2
	7주	막 5:1-20	가치의 전도	성서사전 세계관 3
	8주	단 1:1-9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세계관 실행
2 회 기	1주	몬 1:7-18	종 이상의 사랑을 받는 형제	세계관
	2주	마 4:1-4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양한 세계관
	3주	레 5 7-11	힘의 분량대로	제사장 나라의 핵심가치
	4주	막 8:6-9	4000명의 기적	하나님 나라의 핵심가치
	5주	빌 2:1-11	십자가의 길	성서사전 세계관 1
	6주	호 6:1-6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성서사전 세계관 2
	7주	요 6:1-13	열두 바구니에 찻더라	성서사전 세계관 3
	8주	단 6:7-10	전에 하던 대로	세계관 실행
3 회 기	1주	빌 3:7- 9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세계관
	2주	눅 4:5-8	천하만국을 너에게	다양한 세계관
	3주	민 6:24-27	제사장 나라의 인사법	제사장 나라의 핵심가치
	4주	눅 23:34	용서를 향한 열정	하나님 나라의 핵심가치
	5주	호 11:8	당신의 삶 되기를	성서사전 세계관 1
	6주	마 4:35-41	폭풍 속에 주를	성서사전 세계관 2
	7주	눅 10:25-37	외면하고 가시겠습니까?	성서사전 세계관 3
	8주	요 16:8	삶에서의 승리	세계관 실행
4	1주	롬 8:6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세계관



회 기	2주	눅 4:9-13	뛰어내리라	다양한 세계관
	3주	신 2:19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제사장 나라의 핵심가치
	4주	고전 3:16-17	너의 몸이 성전	하나님 나라의 핵심가치
	5주	삼하 11:1-12	우리아와 다윗의 연결고리	성서사전 세계관 1
	6주	전 4:1-12	더불어 살아가기	성서사전 세계관 2
	7주	엡 1:1-4	세상을 향한 외침	성서사전 세계관 3
	8주	레 19:1-4	일상을 살아가는 지혜	세계관 실행

### 분반공부를 통한 세계관 교육

설교는 상호 소통적인 것보다는 선포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대그룹 형태로 진행한다. 반면 분반공부는 소그룹 형태로 진행한다. 분반공부는 단순히 친교와 교재의 시간이 아니다. 궁금했던 부분이나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며, 결단하고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설교를 듣고 다짐한 내용을 분반공부 시간에 다지고 적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그룹으로 설교가 진행된 이후 소그룹 분반공부를 통해 한 번 더 교육해야 한다.

분반공부는 분반교사가 진행한다. 하지만 교사마다 세계관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르고 가르치는 기술 또한 제각각이라 개인별 편차가 존재한다. 분반공부는 다양한 교사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변수가 있다. 하지만 세계관을 확실하게 확립시키는 방법은 동일한 내용으로 분반공부를 진행하는 것이다. 교사들에게 매뉴얼을 제공하고, 매뉴얼에 따라 분반공부를 인도하게 해야 한다.

예배 후 학생들이 반별로 모이면 교사는 시작 기도를 한 후 마음 열기 시간을 가진다. 이때 한 주간 재미있었던 일이나 개인 신상을 나누며 서로 마음을 열게 한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을 학생들이 얼마나 지켰는지 확인한다. 그런 다음 교사가 그날 설교의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짚어 주고, 학생들이 각자 받은 은혜와 느낀 점을 나누게 한다. 모든 학생이 느낀 점을 나누면,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결단하게 하고, 한 주간 어떻게 살 것인지 함께 다짐하는 시간을 가진다. 교사는 학생들이 결단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결단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으로 분반공부를 마무리한다.

분반공부 매뉴얼을 도표로 정리하면 <표7>과 같다.

<표7> 분반공부 매뉴얼

순서	내용	소요 시간	학습 진행 내용
1	시작기도	1분	- 담임교사(학생)의 기도
2	마음 열기	5분	- 일주일간 살면서 재미있던 일 - 교사가 준비한 간단한 게임
3	숙제 검사	3분	- 지난주 다짐했던 내용 점검
4	오늘의 말씀	5분	- 설교 주제 요약(설교 요약문 제공)
5	은혜 나눔	10분	- 말씀을 통해 깨달은 점 - 성서사전 세계관과 연관 짓기
6	적용과 결단	5분	- 성서사전 세계관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결단하기
7	결단기도	2분	- 교사의 기도
8	주기도문	1분	- 다 같이

### 세계관 형성 프로젝트

설교와 분반공부를 통한 세계관 교육은 예배라는 특성과 한정된 시간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설교를 통해 세계관에 관한 내용을 성경과 연결해 들음으로써 청소년들은 자신의 세계관을 돌아볼 수 있으며, 새로운 세계관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얻는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새로 확립한 세계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세계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교육해야 한다. 이에 청소년들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통성경적 세계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과 같이 올바른

세계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라는 이름의 세계관 형성 프로젝트를 개발했다.

### 세계관 형성 프로젝트의 운영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세계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으로 청소년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청소년들이 그 세계관을 삶에서 유연하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프로젝트는 총 4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나라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다양한 세계관의 차이점들을 통찰력 있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며, 성서사전 세계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인도자가 필요하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 교육 효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인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프로젝트 인원은 4명이나 6명으로 구성한다. 기본적인 인원 구성은 같은 성별을 기준으로 하되, 남녀가 혼합될 경우 비율을 1:1로 맞춘다. 연령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구분하여 구성한다. 조별로 활동해야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인원은 짝수를 유지한다.

프로젝트는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며, 가급적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세미나실이나 교실 같은 장소를 선택한다. 청소년들은 주변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집중을 흐트리는 외부적인 요소를 통제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 세계관 형성 프로젝트의 구성

매주 진행되는 프로젝트 진행 계획은 다음과 같다. 1주 차에는 ‘세계관과 이해’ 라는 주제로 세계관이 왜 중요하고, 그 세계관이 삶 속에서 어떤 선택과 결과를 맺게 하는지에 진행한다. 2주 차에는 세상의 다양한 세계관에 관해 다룬다. 앞서 언급한 청소년들의 세계관,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그리고 성서사전 세계관까지 세계관을 전반적으로 다룬다.

3주 차에는 ‘선택’ 이라는 주제로 세계관으로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토의하고, 성서사전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실습을 한다. 3주 차 실습은 ‘성경극장: 당신의 선택’ 이다. 성경에 나오는 선택의 순간을 참여자들이 선택한 뒤, 그 이후에 펼쳐질 상황을 예상해 간단한 스킷드라마로 구성해 발표한다.

마지막 4주 차에는 그동안 배우고 익힌 세계관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습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세계관 확립 프로그램을 마무리한다. 4주 차 실습은 ‘인생극장: 나의 선택’ 이다.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직면할 선택의 순간들을 제시하고, 참여자들이 선택한 내용과 그 결과들을 스킷드라마로 구성해 발표한다.

세계관 형성 프로젝트 커리큘럼은 <표8>과 같다.

<표8> 세계관 형성 프로젝트 커리큘럼

주	핵심주제	수업 내용
1주	세계관 형성	나도 모르는 나의 세계관
2주	다양한 세계관 이해	충돌하는 세계관
3주	세계관과 선택	세계관의 전쟁 ‘성경극장: 당신의 선택’
4주	세계관 실습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인생극장: 나의 선택’

## 세계관 형성 프로젝트의 내용

1주 차에는 세계관의 형성과 이해를 다룬다. 세계관이 무엇이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경의 이야기와 일반 자료를 조합해 세계관의 중요성을 교육한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관의 형성 과정에 대해 배운다. 자신의 세계관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세계관으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토의하고 적용한다.

2주 차에는 인본주의, 뉴에이지, 포스트모더니즘, 물질주의, 동성애 등 다양한 세계관을 배운다. 주류 세계관의 형성 과정과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배우며, 이 세계관들과 ‘성서사전 세계관’ 사이에 어떤 마찰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마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토론하고 적용한다.

3주 차에는 ‘성서사전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한다. 성경의 사례를 통해 다양한 세계관에 따른 선택의 결과를 예측해 보고, 성서사전 세계관으로 선택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 토의하면서 이 세계관이 주는 유익과 결과를 나눈다. 3주 차부터는 교육과 실습이 병행된다. 3주 차 실습 ‘성경극장: 당신의 선택’은 성경 인물들의 사건을 중심으로 각 인물이 사건을 어떤 세계관과 방법으로 해결했는지를 스킷드라마로 구성해 발표한다. 참가자들이 성경 인물이 되어 그 상황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드라마를 이끌어 나간다. 참가자를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성경 이야기대로 구성하게 하고, 다른 팀은 성경과 다른 선택을 했을 경우를 예상해 드라마를 구성하게 한다. 각 선택의 결과를 함께 토의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예를 들어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받았을 때의 상황을 주제로 정해서 다니엘이 겪는 인간적인 고민과 고뇌 그리고 선택의 순간을 각자의 세계관으로 재구성해 드라마로 표현하게 하는 방식이다.

마지막 4주 차에는 ‘성서사전 세계관’을 삶에 적용하는 실습을 진행한다.

성서사전 세계관으로 한 주를 살면서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지 토의하고, 삶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나눈다. 삶에 적용할 다양한 부분을 함께 찾고 결단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4주 차 실습은 실제 청소년들이 겪는 삶의 문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4주 차 실습은 ‘인생극장: 나의 선택’이며, 참가자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드라마로 재구성해서 발표한다. 예를 들면 ‘시험 기간에 교회에 가야 하는가?’ 라는 주제에 각자의 세계관을 적용해 드라마로 재구성한 후 발표한다. 세부적인 진행 방식은 3주 차에 진행하는 성경극장과 동일하다.

<표9>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프로젝트의 실제

1주	세계관의 형성 - ‘나도 모르는 나의 세계관’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 내 이름 아시죠
마음 열기	세계관은 배꼽 같다. 사람들은 모두 배꼽이 있지만, 배꼽에 대해 자주 말하지는 않는다. 어쩌면 세계관은 소뇌와 같다고 말하는 편이 더 나올지도 모른다. 모든 사람은 소뇌가 있고 소뇌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자신이 소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는 공기가 꼭 필요한 것처럼 사고하기 위해서는 세계관이 꼭 필요하다. 물리적 진공 상태에서 숨을 쉴 수 없는 것만큼이나, 지적 진공 상태에서는 사고할 수 없다. 대부분 사람들은 공기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기가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지라도 사람들은 그 공기를 보기보다는 그 공기를 통해서 본다. 대부분 사람들은 세계관을 직접 보기보다는 세계관을 통해서 본다. 세계관은 필수적이지만 대부분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 <sup>100</sup>
성경 읽기	빌레몬서 1장 1절 - 25절
생각 하기	1. 빌레몬서의 등장인물은 누구입니까? 2. 당시 로마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핵심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3. 빌레몬서 1장 16절을 다시 읽고 다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빌레몬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무엇이었나요?
나눔과 토론	1.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2. 세계관의 변화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나요?

<sup>100</sup> James N Anderson, *나도 모르는, 나의 세계관*, 김광남 역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16), 18-19.

	3. 세계관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결단과 적용	세계관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세계관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기록하십시오.
2주	<b>다양한 세계관 - ‘충돌하는 세계관’</b>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 내 삶을 깨뜨립니다
마음 열기	한때 ‘침대는 과학입니다’ 라는 광고 문구가 유행했던 적이 있다. 당시 많은 학생이 학교 시험 답안지에 침대는 ‘가구’ 가 아닌 ‘과학’ 이라고 표기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광고 문구 하나가 사물의 정의를 바꿀 정도이니 미디어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 수 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청소년 시절에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어른은 청소년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고 아름다운 것을 보여 주어야 할 ‘책임’ 가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책임을 가진 어른이 오히려 틀린 것을 옳은 것으로 가르치고, 음란을 사랑으로 둔갑시켜 보여 주고 있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sup>101</sup>
성경 읽기	창세기 2장 16-17절
생각 하기	1.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계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2. ‘성서사전 세계관’ 은 무엇인가요? - 성경적 세계관 - 서로를 위한 세계관 - 사랑의 세계관 - 전도의 세계관
나눔과 토론	1. 지금까지 나에게 영향을 끼친 세계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2. 세계관들은 어떤 방식으로 서로 충돌하나요? 3. 세계관의 충돌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결단과 적용	세상의 세계관은 우리가 가진 세계관과 충돌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가 삶 가운데 펼쳐질 때,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의 말로 기록해 보세요.
3주	<b>세계관의 선택 - ‘세계관의 전쟁’</b>
찬양	주 없이 살 순 없네 / 시간을 뚫고

<sup>101</sup> 이태희, *동성애가 바뀌버릴 세상 세계관 전쟁*, 18.

마음 열기	경쟁적인 세계관이 모든 곳에서 넘쳐나고 있다. 우리가 볼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으며, 옳은 생각을 할 마음이 있다면 말이다. 세계관들은 신문가판대, 저녁 뉴스, 여러 대학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세계관끼리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전통적 기독교 사상을 지닌 사람들, 다양한 자유주의·급진주의 인본주의자들,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과격주의자들 간의 정치적이거나 윤리적인 충돌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얻기 위한 이 전투는 정치와 윤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포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 정치적, 윤리적 신념뿐 아니라, 철학, 윤리학, 법학, 역사학 등의 다양한 분야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려해야 한다. <sup>102</sup>
성경 읽기	빌립보서 2장 5-10절
생각 하기	1.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2. ‘성서사전 세계관’ 으로 세상을 보면 어떤가요? 3. 세계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요? 4. 어떻게 하면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5. ‘성서사전 세계관’ 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나눔과 토론	1. 세계관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2. 어떤 세계관이 자신에게 적합한 세계관인가요? 3. 어떤 경우에 세계관의 싸움을 경험하나요? 그리고 승리와 실패의 경험은 어떤 것인가요?
결단과 적용	세상은 세계관의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훈련과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나요? 여러분이 선택한 세계관을 여러분의 말로 기록해 보세요.
4주	<b>세계관의 실습 -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b>
찬양	나는 믿네 / 내 모습 이대로
마음 열기	지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타고 어린 청소년들을 자극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음란물이 범람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그 음란물들이 아이들을 유혹하며 소리친다. “누려라. 다 누려라. 본능이 이끄는 대로 마음껏 누려라!” 마치 포로로 잡혀 온 다니엘과 같은 젊은이들을 향해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포도주를 마셔라! 마음껏 다 누려라! 대신 이름만 바꿔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 포기해라!” 라고 외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가 바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같지 않은가? 이런 현실이다 보니 신앙교육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sup>102</sup> David A. Noebel, *충돌하는 세계관*, 류현진, 류현모 역 (서울: 꿈꾸는 사람들, 2013), 21.



	혼미하게 만드는 세상 문화의 현실이다. <sup>103</sup>
성경 읽기	다니엘 1장 1-21절
생각 하기	1.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어떤 삶을 살았나요? 2. 다니엘이 끝까지 붙잡았던 세계관은 무엇인가요? 3. 창세기 3장 6절을 읽고 다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나눔과 토론	1. 바벨론에서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2. ‘성서사전 세계관’ 이 바벨론에서 살아갈 어떤 힘을 제공해 주나요? 3. 세상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나요? 어떤 경험인가요?
결단과 적용	‘성서사전 세계관’ 으로 세상을 살아갑시다. 우리 앞에 놓인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성서사전의 세계관으로 어떻게 승리할지 여러분의 말로 기록해 보세요.

---

<sup>103</sup> 이찬수, *세상에서 믿는자로 산다는 것* (서울: 규장, 2019), 17-18.

## 제 V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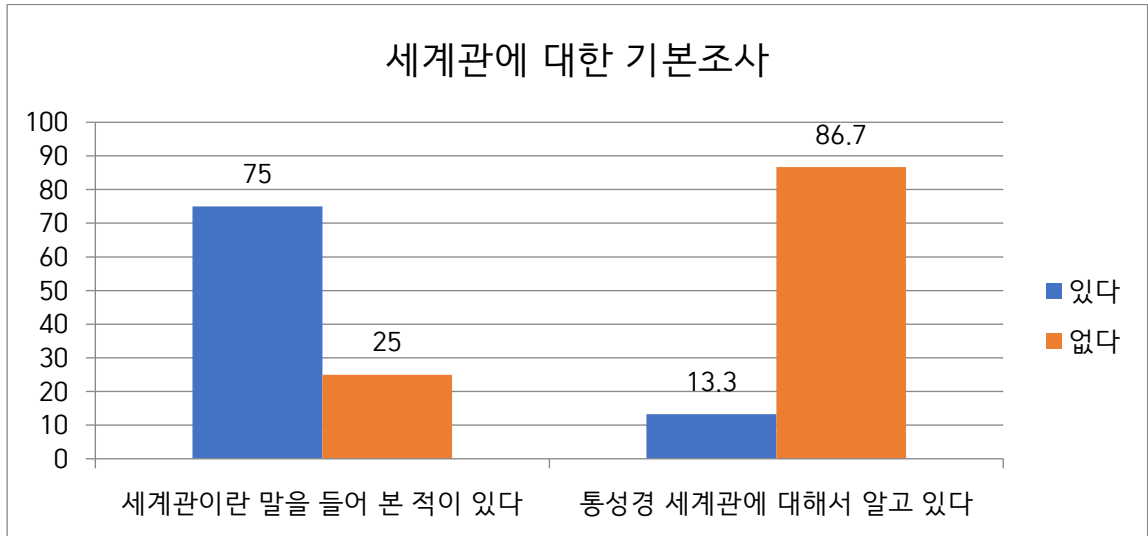
### 청소년 세계관 형성을 위한 통성경 교육 실행

#### 세계관 형성 교육 실행의 배경

##### 합성교회 청소년들의 배경

합성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으로 경남 마산시 합성동에 자리하고 있다. 1952년 개척된 이후 지금까지 68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교회이다. 개척 초기부터 청소년부가 존재했으며, 현재에도 45여 명의 학생이 합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청소년부는 H.M.C(History Maker Church)라는 이름으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합성교회 청소년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찾은 학생이 80% 이상이다. 그렇기에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환경 안에서 세계관을 배우고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어릴 때부터 교회에 출석한 학생으로 구성되다 보니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의 바탕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기독교적 세계관이 얼마나 깊고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기에 설문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보았다.

&lt;표10&gt; 세계관에 대한 기본조사



세계관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세계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5% 이상이 세계관이라는 말을 들어 보았다고 응답했다. 즉, 상당수의 학생이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접해 보았다는 것이다. 반면 통성경적 세계관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약 13%만 ‘알고 있다’ 라고 답했다.<sup>104</sup> 나머지 약 87%의 학생은 통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통해 세계관이라는 말을 들어 본 학생 중 통성경적 세계관을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은 약 13%이며, 나머지 학생 대부분은 세계관에 대해서 들어 보기는 했지만 통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sup>104</sup> 통성경 세계관에 대해서 안다고 답했을 때 ‘안다’의 기준은 세계관을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설정했다.

## 세계관 형성 교육을 위한 사전 작업

세계관 확립 교육을 실행하기에 앞서 먼저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받아들이는 학생이 거부하면 의미 없는 교육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합성교회 청소년들에게 세계관이 무엇이고, 이 세계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동기부여 작업을 선행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학생들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호기심을 유발할 정도의 사전작업을 진행했다.

### 수련회를 통한 사전작업

2019년 겨울 수련회를 세계관 탐험 형식으로 진행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라는 주제로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프로그램 일부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바벨론과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전쟁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게 했다. 무기, 군량, 병력, 전술 등 실제로 전쟁에 필요한 것들과 한편으로는 예배, 기도, 말씀, 찬양과 같은 주제를 준비해 그중에서 선택하게 했다. 그런 다음 각자 선택한 가치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갔다. 전쟁에서 실제로 필요해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리고, 전쟁에서 필요 없어 보이는 예배, 기도, 말씀과 찬양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자는 교훈을 학생들이 느끼게 해 주고 싶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경영을

깨닫게 해 주고 싶었다. 그 결과 수련회 마지막 날 피드백 시간에 몇몇 학생이 기존에 가졌던 사고와는 다른 사고를 인식하게 되어 의미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3박 4일간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이 세계관이라는 용어에서 느끼는 거부감을 제거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나올 만큼 익숙해지도록 만들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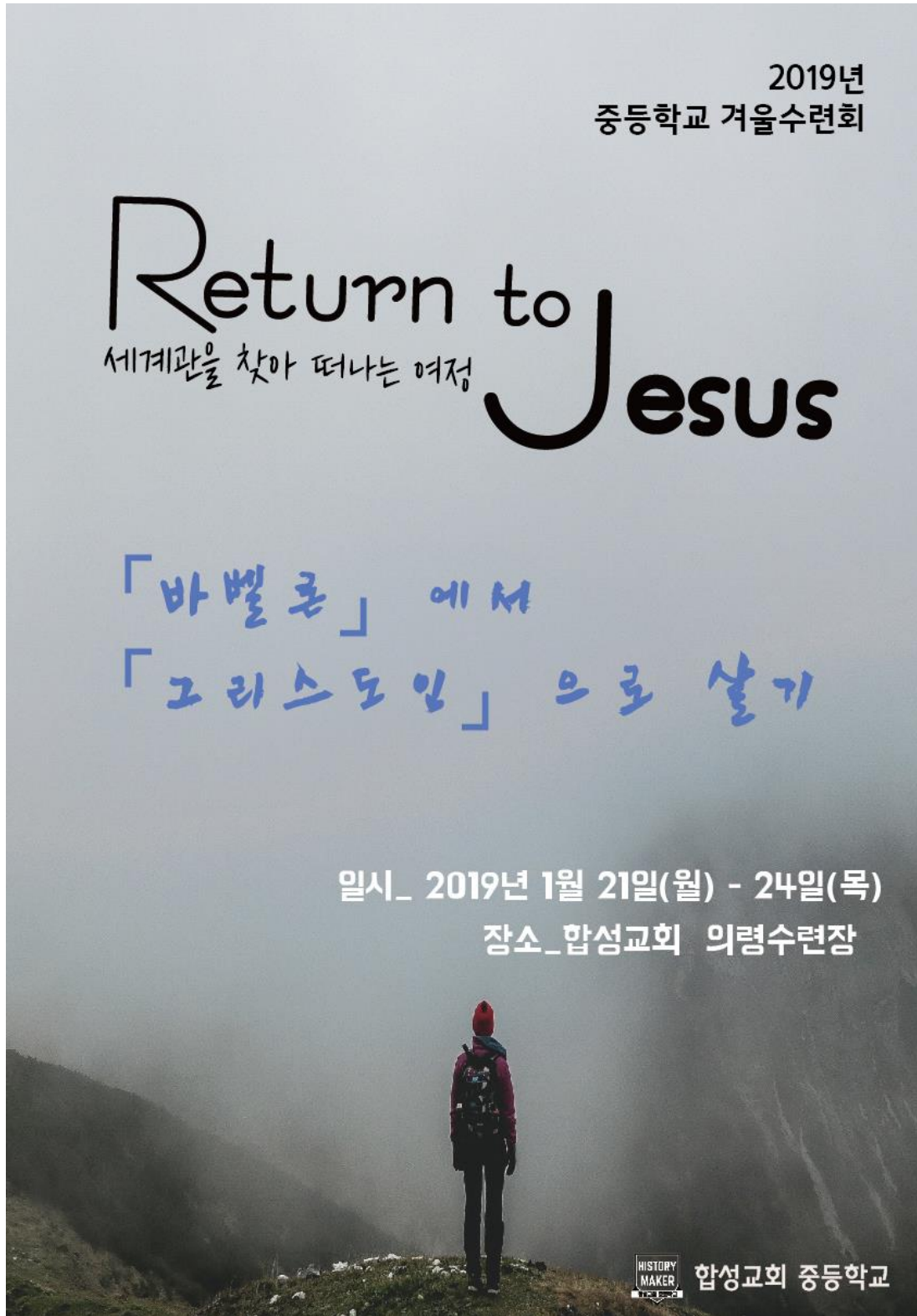
<그림1> 수련회를 통한 사전작업 1



<그림2> 수련회를 통한 사전작업 2



<그림3> 사전작업을 진행한 수련회 포스터



### 교사교육을 통한 사전작업

합성교회 청소년 예배는 찬양, 말씀, 분반공부로 진행된다. 세계관 형성을 위한 통설교는 담당목사가 <표4>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 전체에게 설교한다. 분반공부는 반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분반공부에서 담임교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교사가 세계관 확립에 대한 이해나 교육 수준이 낮다면, 교육의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교사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세계관에 확립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먼저 통성경적 세계관 확립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18년 9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매 주일 오후 1시에 교사회의회실에서 16주간 교사교육을 진행했다. 1주 차부터 8주 차까지는 통성경적 설교를 중심으로 세계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교육했으며, 9주 차부터 12주 차까지는 소그룹 프로젝트로 세계관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13주 차부터 15주 차까지는 세계관 교육 교수법과 지도법을 교육했으며, 마지막 16주 차에는 교육을 통해 느낀 점과 피드백을 나누면서 교육을 종료했다.



<그림4> 세계관 형성 교사교육 1



<그림5> 세계관 형성 교사교육 2



청소년들에게 통성경적 세계관을 심어 주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세계관은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되기 때문에 교육을 위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교사교육과 같은 준비가 있어야 교육을 통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통설교와 분반공부를 통한 교육 실행

### 통설교를 통한 교육 실행

설교와 분반공부를 활용해 세계관 확립 교육을 진행했다. 합성교회 청소년부 예배는 매 주일 10시 50분에 찬양으로 시작한다. 찬양단의 찬양이 끝나면 통성기도를 하고 대표 기도자가 기도한다. 그 후 헌금 특송과 헌금 순서가 이어지며, 성경봉독자가 말씀을 읽은 후 설교자가 설교를 시작한다. 10시 50분부터 11시 50분까지 한 시간가량 진행되는 예배 중 설교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 정도이다. 하지만 그 시간을 온전히 설교에 할애할 수는 없다. 설교 전에 간단한 인사와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고 나면 실제로 설교하는 시간은 25분 정도 주어진다. 설교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기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25분 안에 세계관에 대한 설교를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25분간 이루어지는 설교에서 교육적인 내용과 신앙적인 부분을 적절하게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25분 동안 주제 내용을 교육하고 동시에 은혜까지 전하며 더 나아가 삶을 통한 결단까지 이어지게 설교하는 것은 필자에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교육이 중심이 된 설교를 이어갈 때도 있었고, 때로는 은혜에 집중해 교육적인 부분을 소홀하게 넘길 때도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설교가 끝난 후 삶의

결단을 일으키지 못한 일도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이후 3주 전부터 설교 원고와 예배 순서를 확정하고, 2주 정도 리허설을 진행하며 피드백을 받는 등 노력을 했다. 그로 인해 어느 순간부터 주어진 시간 내에 은혜의 말씀과 세계관 교육을 균형 있게 전하는 설교를 하게 되었다.

설교를 통한 교육은 8주씩 4회로 구성해 1년 과정으로 진행했다.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적어도 청소년들이 통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1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진행했다. 각 회차가 끝나면 4주간의 휴식기가 있는데, 이때에는 기존 교회력에 따른 설교와 주제 설교로 진행하되 설교의 핵심 주제가 삶에서 어떤 세계관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기록하는 시간을 가지게 했다. 또한 교사와 학생들의 피드백을 중심으로 다음 회차를 수정 보완해 준비했고, 교육과정 중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점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설교 교육은 학생들이 참여해야 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상황에 따라 매주 번갈아 가며 결석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특히, 시험 기간에는 출석률이 현저히 저조해지면서 교육이 온전하게 이어지지 않고 중간중간 교육 내용을 건너뛰는 문제가 발생했다. 교육과정이 몇 차례 빠지더라도 이해하는 데 무리는 없었으나 장기간 출석을 하지 않거나 몇 주간 결석한 학생들이 듣기에는 문맥이 어려운 부분들도 생겼다. 아무래도 소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학생에게 선포의 형식으로 전달하다 보니, 개인의 삶을 세심하게 터치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

전체적인 설교의 형식과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설교에 포함된 핵심 내용은 반복되기에, 아이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도 생겼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회기가 끝나면서 집중력을 잃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회기부터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미디어와 영상 도구를 활용해 설교를 진행했더니 학생들의 집중력과 호응도가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1회기가 끝난 후 어렵고 힘들고 재미없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성경의 이야기에 접목해 그들의 눈높이로 재편성해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2회기가 지나면서 1회기에 받았던 부정적인 의견들이 훨씬 줄었고, 회를 진행할수록 부정적인 피드백보다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아졌다.

처음 1회기에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교육 내용이 과연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의문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교육이 거듭될수록 학생들은 점차 익숙해져 갔다. 실제 문제에 적용해 삶을 터치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니 점차 자신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마지막 4회기에는 예배가 끝난 후 찾아와 질문하기도 하고, 한 주간 살면서 승리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칭찬을 요구하는 학생들도 생기기 시작했다.

### <그림6> 통설교를 통한 교육 실행



### 분반 공부를 통한 교육 실행

설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할 때 각 사람을 세심하게 터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개인의 생각이나 상황을 묻고 이해하고 나누기에 시간이 부족했다. 또한 예배라는 환경적 제약 때문에 불가능했다. 예배는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받아들이는 진행 방식이다. 따라서 신앙이 깊고 관심이 높은 학생은 교육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한계가 존재했다.

그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훈련된 교사들이 소그룹 분반공부를 진행하게 했다. 교사들은 일주일 전에 설교 내용과 가르칠 내용을 가정에서 정리해 담당목사에게 브리핑한다. 매 주일 10시 20분에 시작되는 교사회에서 분반공부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에 관한 총정리 교육을 진행하고, 다 같이

그날의 예배와 분반공부를 위해 기도하며 회의를 마친다. 예배가 끝나면 교사들은 반 학생들을 인솔해 분반공부 장소로 향한다. 그리고 <표7>의 내용대로 교육을 진행한다. 교사들은 개인과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개별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매뉴얼과 교재를 바탕으로 분반공부를 진행하기에 교사들이 느끼는 부담은 줄었다.

분반공부에서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었다. 그러나 분반공부에 주어진 최대 35분이라는 시간은 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이번 주 배울 내용을 가르치고 나누기에는 부족했다. 또한 학생들이 각자의 삶에서 결단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주중에는 카톡 심방으로 잘 지내고 있는지 또 배운 세계관과 내용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지 지속해서 확인해야 하기에 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게 되었다. 분반공부를 통한 세계관 교육은 설교에서 터치하지 못했던 개인의 삶과 나눔의 부분까지 터치하기에 상호보완적이다. 그러나 분반공부는 해당하는 주의 설교 내용과 맞물려 진행해야 하기에 한순간이라도 어긋나면 안 된다.

그런데 새로운 학생이 교회에 와서 분반공부에 참석하면 전후 배경과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해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또한 각 반에 생일인 친구가 있으면 학생들이 분반공부를 미루고 축하파티를 하고자 하므로 학습 효과가 확연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생겼다. 이에 학생들의 상황을 살피는 동시에 주어진 교육의 내용을 실행해야 하는 두 가지 임무를 맡은 교사들이 회기가 반복될수록 피로감을 호소하는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교육이 진행될수록 학생들의 삶과 세계관이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학생들의 행동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교사의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았으나 점차 자신의 이야기와 고민과 문제를 나누었고, 교사들도 기쁨으로 교육에

참여하면서 분반공부 시간이 더욱 풍성해졌다. 설교를 통한 교육이 대그룹에서 행하는 교육 형태라면 분반공부를 통한 교육은 소그룹 형태의 교육이다. 어느 것이 더 좋고 더 나쁜 것은 없다. 서로 상호보완적이다. 한쪽이 채우지 못한 부분을 다른 한쪽이 채우는 교육 방식으로 학생들의 세계관이 이전보다 훨씬 유의미하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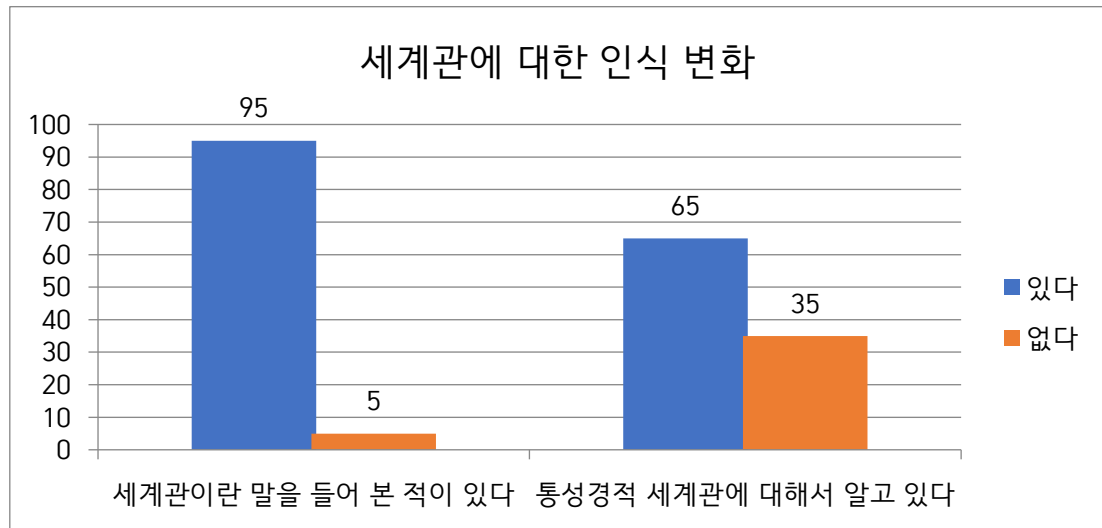
<그림7> 세계관 형성 분반교육



### 통설교와 분반공부를 통한 교육 평가

1년 과정의 4회기 교육과정이 끝난 후 학생들의 세계관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세계관이 얼마나 확립되었는지 그리고 교육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lt;표11&gt; 세계관에 대한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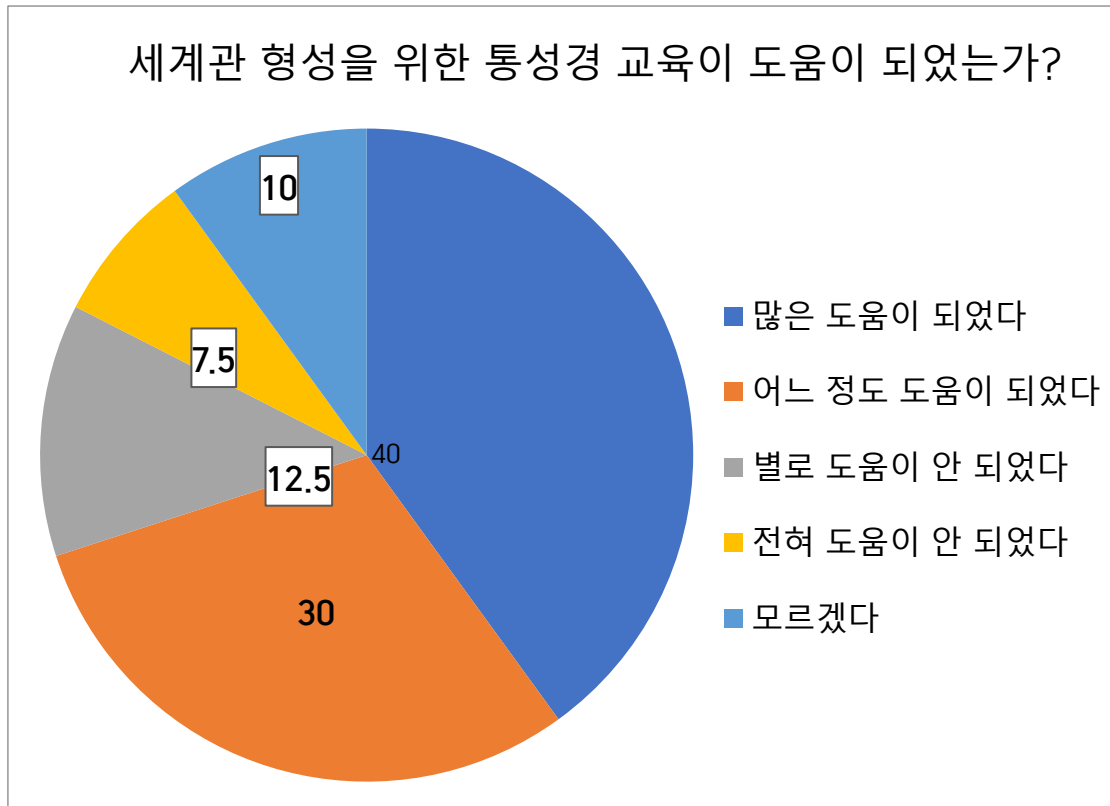


청소년부 총 45명 중 40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모든 교육을 마치고 학생들에게 세계관이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지에 관해 질문했을 때 응답자의 95%인 38명이 들어 보았다고 대답했다. 이는 교육을 시작하기 전 수치인 75%보다 약 20%p 상승한 수치이다. 또한 통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약 65%인 26명이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것 역시 교육 시작 전에 답한 4명보다 약 6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통성경적 세계관을 안다는 것으로 세계관이 형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을 시작하기 전보다 약 6배 가까운 학생들이 통성경적 세계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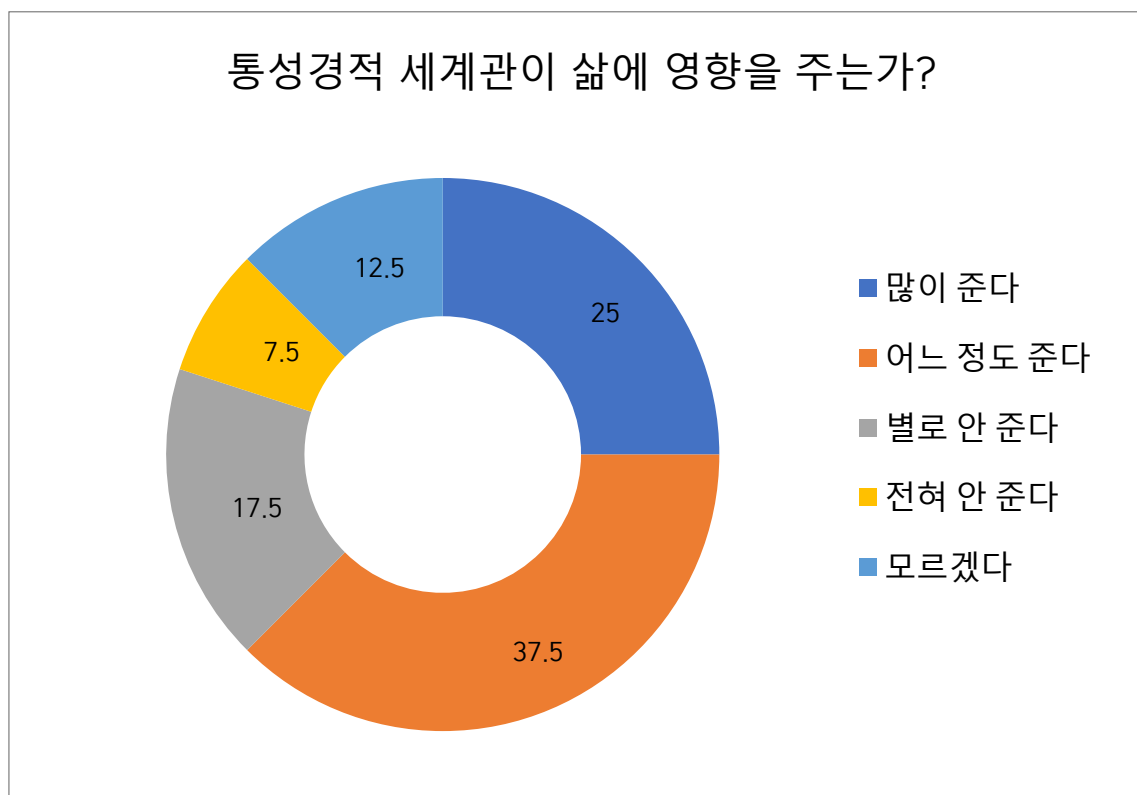


&lt;표12&gt; 세계관 형성과 통성경 교육의 유익



1년간 진행한 통설교와 분반공부를 통한 세계관 교육이 과연 세계관 형성에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40명 중 40%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고 답했고, 30%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고 답했다. 즉, 응답자의 70% 정도가 세계관 형성에 필자가 주장한 설교와 분반공부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 결과로 통설교와 분반공부를 활용한 교육이 세계관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t;표13&gt; 세계관과 통성경의 영향



통성경적 세계관이 청소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영향을 ‘많이 준다’ 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25%였으며, ‘어느 정도 준다’ 고 대답한 응답자는 37.5%였다. 즉, 응답자의 62.5%가 영향의 정도에 상관없이 통성경적 세계관이 삶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 세계관이 삶에 작용해 행동의 변화를 만들고, 더 나아가 자신의 세계관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통성경적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세계관이 형성된 것을 보여 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응답자 중 60% 이상이 통성경적 세계관을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고, 세계관 형성을 위한 통성경적 설교와 분반공부가 도움이 되었다고 했으며, 통성경적 세계관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이는 청소년의 세계관 형성에 통성경을 통한 설교와 분반공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나타낸다. 결과만 볼 때 통성경적 세계관으로 설교하고 가르칠 때 세계관의 형성과 변화가 나타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세계관 확립을 수치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변화된 수치를 통해서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세계관 교육 프로젝트 실행

기존의 설교와 분반공부를 통한 세계관 교육이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치중한 교육이라면 4주간 진행되는 세계관 확립 프로젝트는 보고 들은 세계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심층 교육 프로젝트이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중고등부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총 2회 진행되었다. 1차 교육은 청소년부 임원 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2차 교육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 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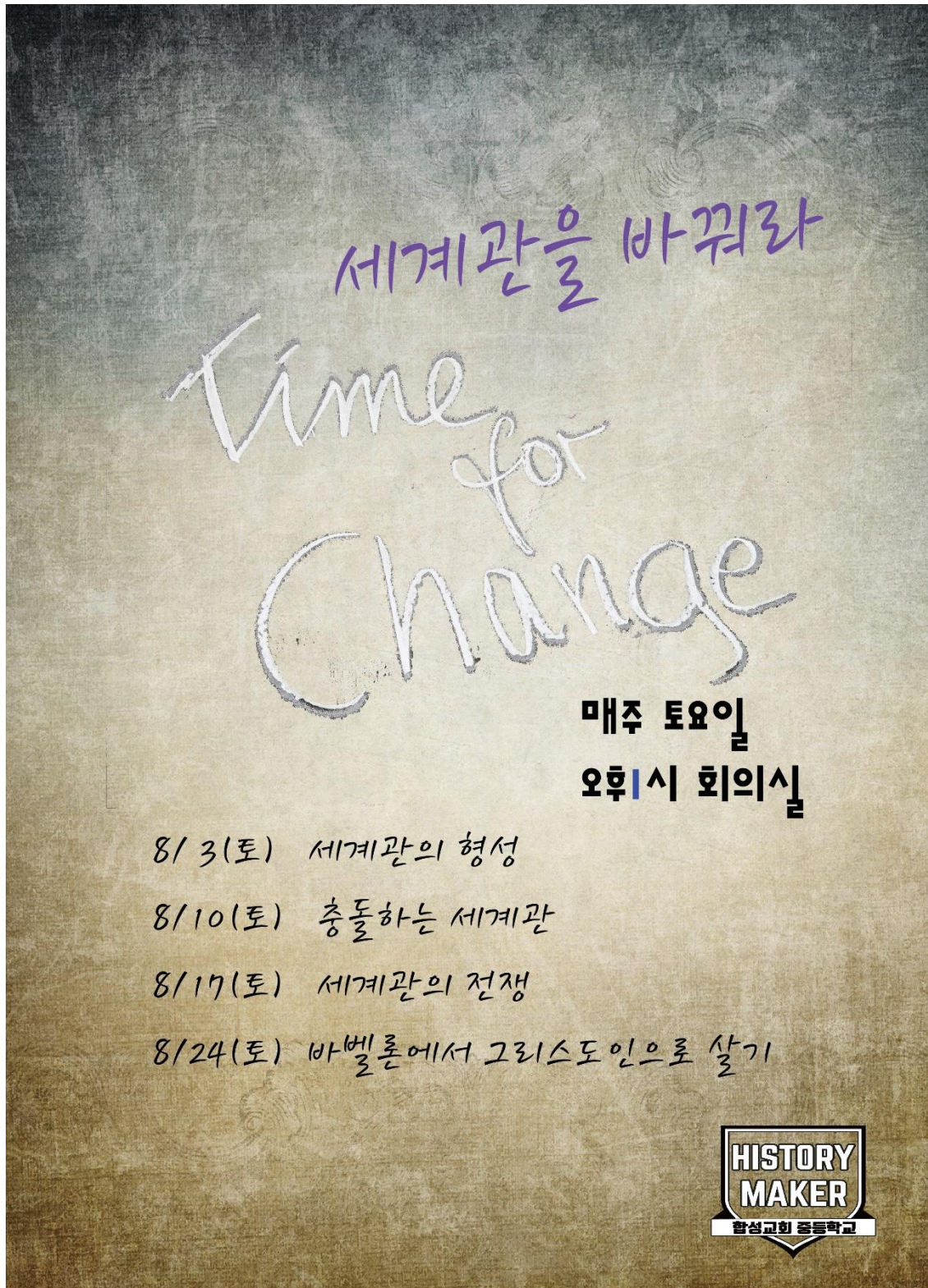
토요일에는 4시부터 중고등부 찬양팀 연습이 있어 학생들이 1시부터 3시까지 따로 시간을 내어 세계관을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다. 학생 대부분이 찬양팀 구성원이기 때문에 만약 세계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간 동안 교회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예배당 곳곳에 세계관 교육 프로젝트 홍보물을 게시하고, 교육 후에는 즐거운 다과 시간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그 결과 임원단 학생 6명을 대상으로 1차 세계관 교육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임원단 교육이 끝나고 6개월 뒤에 중학교 2학년 여학생 6명을 대상으로 2차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사춘기를 겪는 여학생들에게 BTS나 엑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통성경적 세계관이라 판단해 교육을 진행했다. 4주간의 2차 세계관 교육은 기존 교육보다 시간상으로 여유가 있었다. 이를 활용해 세부적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의 생각을 충분히 들으며, 서로 토의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 적용할 수 있게끔 이끌었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해 삶의 실천 문제까지 풍성하게 다뤘다. 자연스럽게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집중도와 참여도도 확연히 늘어났다. 4주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 한 명도 결석하지 않고 모두 프로젝트를 완수했다.

<그림8> 세계관 교육 프로젝트 수료식



&lt;그림9&gt; 세계관 형성 프로젝트 포스터



## 세계관 교육 프로젝트 설문 및 인터뷰

총 두 차례 진행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원 12명이 모두 수료했다. 수료 후 피드백과 후기를 나누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 1명씩 2명을 선발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질문지를 나누어 주고 답변을 작성해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심층 인터뷰했다. 인터뷰는 2019년 8월 24일과 2019년 11월 24일 두 차례 진행했다.

인터뷰의 목적을 설명하고 이 내용이 논문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밝힌 후 동의를 얻었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대상자의 실명을 일부만 공개하고, 답변을 중심으로 인터뷰의 내용을 종합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세계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2.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유익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3. 프로젝트를 실제 적용하면서 느꼈던 점은 무엇인가요?
4. 프로젝트 실행 후 세계관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5.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 <인터뷰 내용>

최○○(18세, 남)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최○○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서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단지 학문적으로만 이해했고, 세계관이 개인의 삶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세계관 형성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세계관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고 세계관을 왜 형성해야 하는지, 지금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어떤 세계관을 선택해야 하며, 통성경적 세계관인 ‘성서사전 세계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세계관 형성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세계관이 모르는 사이 제 삶 깊은 곳에서부터 작용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세계관 형성 프로젝트에서 배운 내용을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적용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숙제 내용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중요했던 일을 통성경적 세계관으로 다시 써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힘들기도 해서 하기 싫었는데, 하루하루 쓰다 보니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세계관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3주차 때 ‘성경극장: 당신의 선택’을 실습하면서 직접 성경 속 인물이 되어 그 인물이 겪었을 고민과 갈등을 직접 드라마로 구성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본도 직접 만들고 또 연기를 하면서 진짜 성경 속의 인물이 되어서 결정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계관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하고 선택했다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나서는 내가 가진 통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세상의 세계관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스스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15세, 여)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세계관 형성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왠지 두려운 생각도 들고 생소하게 다가왔습니다. 단어 자체만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그 뜻을 몰랐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계관이라는 것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도 친구들이 같이 하자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세계관이라는 단어 그리고 세계관이 주는 영향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삶에 다양한 세계관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갈지, 나에게 필요한 세계관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경험했던 것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토론하고 나누는 시간인데, 저 혼자만의 고민이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른 친구들도 동일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4주 차 때 실습한 ‘인생극장: 나의 선택’에서 우리 모두의 일상적인 고민을 주제로 제시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지 준비할 때, 똑같은 상황인데도 생각의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숙제로 하루에 한 가지씩 일상에서 겪은 일을 통성경적 세계관으로 써 보기를 할 때는 처음에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계관을 삶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 강의가 끝나고 숙제를 하는데,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쓸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세계관 형성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세계관의 충돌 속에서 저의 세계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마치고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제 VI 장

### 요약과 결론

#### 연구 요약

I 장 서론에서는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자신만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문제를 제시했다. 필자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통성경이 효과적이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통성경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소개하고자 했다. 이어서 연구 방법과 연구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연구가 가지는 제한성을 설명했다.

II 장에서는 세계관이 무엇인지 국내외 학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개념을 정리했다. 그리고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루었다. 한번 형성된 세계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청소년기에 어떤 세계관이 형성되었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다양한 세계관 중에서 청소년들에게 특히 영향을 끼치는 세계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개념과 그들의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종교적인 특징들을 정리했다.

III 장에서는 청소년들의 세계관 형성에 도움이 되고 방향을 제시해 줄

대안으로서 통성경적 세계관을 주장했다. 하나의 사건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를 바라보는 사고로 확장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세계관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5가지 핵심 가치를 통해 정리했다. 더 나아가 필자가 고안한 ‘성서사전 세계관’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성서사전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삶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더불어 통성경이 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통성경의 내용과 청소년의 특징을 연관해 연구를 진행했다.

IV장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성서사전 세계관을 형성시키는지 교육 방법과 방향을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설명했다.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듣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청소년들에게 성서사전 세계관을 들려주는 것부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청소년 예배 시간에 통성경 설교와 분반공부를 활용해 세계관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특히 통성경 설교는 세계관에 관한 주제로 8주 단위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1년에 4회 반복해 설교했다. 매 회기를 마무리할 때 마다 피드백을 받아 분석, 적용해 다음 회기에서 더 발전된 방향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설교에서 부족한 개인적인 터치는 분반공부를 통해서 보완했다. 분반공부는 매뉴얼에 따라 미리 계획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각 반의 편차를 줄이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통성경이 청소년의 세계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직접 적용해 보기 위해 세계관 형성을 위한 4주 프로젝트를 별도로 개발해 프로젝트의 운영, 구성, 내용 그리고 진행 실제 내용까지 정리했다.

V장에서는 필자가 사역하고 있는 마산 합성교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내용을 직접 적용하고 실행한 과정과 결과를 정리했다. 1년 동안 통설교와

분반공부를 통해 세계관 교육을 한 결과 응답자의 65% 이상이 통성경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또한 세계관 형성 프로젝트에 참여한 12명의 학생 모두 세계관 형성에 통성경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서 통성경이 청소년 세계관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 결론과 평가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의 사회면을 보면 심심찮게 청소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이 올라온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제대로 된 생각만 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가득해 진다. 청소년들은 종종 한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겪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생각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인도하는 그 생각들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세상에는 청소년들을 위협하고 유혹하는 다양한 세계관이 존재하다. 마치 그것이 진실이고 선인 것처럼 그럴싸하게 포장한 세계관들이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행복하면 됐지’, ‘인생 뭐 있어’,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등과 같은 말로 청소년의 생각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생각을 심어 주고 올바른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010년 개봉한 영화 <인셉션>은 주인공이 어느 한 사람에게 특정한 생각을 심어 주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며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인공은 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특정한 생각을 심는 데 성공하지만, 그 과정은 매우

힘난하고 어려웠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생각을 심어 주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기존 가치에 저항하며 변화를 추구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혼란한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이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청소년들의 세계관 형성을 위한 기초로 통성경을 제안하고 필자가 통성경에서 고안한 ‘성서사전 세계관’으로 세계관 형성 교육을 진행했다.

세계관을 형성시키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특히 청소년기는 주변의 작은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는 시기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했다.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고 삶에 잘 적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이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다. 하지만 끝까지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과정을 함께 해 나가자 학생들의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세계관은 결국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학생들의 행동이 점점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이 프로젝트가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삶과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비물질적인 영역이다. 이러한 세계관을 형성함에 있어 통성경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확한 수치로 확인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관에 대해 알게 되었고, 통성경의 세계관을 자신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 결과는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 없어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경로의 피드백과 설문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청소년의 세계관 형성에 통성경이 큰 역할을 감당한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1년여 동안의 연구와 현장 적용을 통해 통성경의 세계관으로 청소년의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연구가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 주려는 청소년 담당 사역자나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세계관의 씨앗을 뿌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번역서적

Albert M. Woltere. *창조 · 타락 · 구속*. 양성만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2.

Charles Colson, Nancy Pearcey.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정영만 역. 서울: 요단, 2002.

David A. Noebel. *충돌하는 세계관*. 류현진, 류현모 역. 서울: 꿈꾸는 사람들, 2013.

James N. Anderson. *나도 모르는, 나의 세계관*. 김광남 역. 서울: 이레서원, 2016.

James Sire.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김현수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9.

Michael W. Goheen, Craig G. Bartholomew. *세계관은 이야기다*. 윤종석 역. 서울: ivp, 2018.

Ninian Smart. *종교와 세계관*. 김윤성 역. 서울: 이학사, 2000.

Robert A Harris. *신앙과 학문의 통합*. 최용준 역.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3.

Steve Wilkens, Mark L. Sanford. *은밀한 세계관*. 안중희 역. 서울: ivp, 2013.

### 한국어서적

김서택. *청소년교육*.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부, 2005.

김희자. *정보화 시대의 기독교 청소년 교육*.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5.

나용화.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8.

송인규. *새로 쓴 기독교, 세계, 관*. 서울: ivp, 2014.

- 신국원. *니고데모의 안경*.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5.
- 안점식. *세계관과 종교문화*. 서울: 조이선교회, 2008.
- 유경상. *크리스천 씽킹*. 서울: 카리스, 2019.
- 이승구.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SFC출판부, 2003.
- 이찬수. *세상에서 믿는자로 산다는 것*. 서울: 규장, 2019.
- 이태희. *동성애가 바뀌버릴 세상 세계관 전쟁*. 서울: 두란노서원, 2016.
- 장휘숙. *전 생애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2000.
- 전성민. *세계관적 설교*. 서울: 성서유니온, 2018.
- 정소영.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세계관 특강*. 서울: 미래사CROSS, 2019.
-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통독원, 2018.
-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8.
-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8.
- 조병호. *청소년 성경통독\_지도자 지침서*. 서울: 통독원, 2009.
-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6.
- 최용준. *세계관은 삶이다*. 서울: CUP, 2016.
- 최재호. *믿음은 세계관의 전쟁이다*. 서울: 주식회사 힐링, 2016.
- 한국 청소년 학회. *청소년학 총론*. 서울: 양서원, 2003.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학 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7.
- 한상철. *청소년학: 청소년 이해와 지도*. 서울: 학지사, 2004.
- 한상철 외 4인 공저. *청소년 문제행동-심리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2003.
- 한승돈. *크리스천 세계관: 청소년 교육을 위하여*.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8.



## 논문

김정겸.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김한성. “통(通)성경 방법을 통한 성경듣기에 대한 연구-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와  
1년 10번 성경듣기를 중심으로.”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루신학대학교,  
2016.

박진석, “기독교 세계관이 청소년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선교대학원, 2011.

## 웹사이트

<http://kormedi.com/1189961/>.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934>.

<https://search.naver.com/>.

## V I T A

### PERSONAL DATA

Full Name: Jeongwook Lee

Place and Date of Birth: Masan, South Korea, June.6, 1984

Parent`s Names: Yongsik Lee and Yunjeong Lee

###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b>Changshin High School</b> 106, Bongdeok 2-gil, Masanhoewon-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Korea	Diploma	Feb. 12, 2003
Collegiate: <b>Mokwon University College of Theology</b> 88, Doanbuk-ro, Seo-gu, Daejeon, Korea	B.A	Feb. 20, 2009
Graduate: <b>Mokw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Theology</b> 88, Doanbuk-ro, Seo-gu, Daejeon, Korea	Th.M	Feb. 17, 2011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Jeongwook Lee

Name typed

March 15. 2020

Date